



경상북도의회
http://council.gb.go.kr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전화(053)602-5113 전송(053)602-5120
http://council.gb.go.kr

경북 의정활동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Vol. 69

| 경상북도의회 부활 20주년 |
300만 경북도민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부활 20주년기념 심포지엄

『경상북도의회 의정활동 성과와 발전』

일시.: 2011. 6. 23(목) 장소 : 호텔인터볼고 컨벤션홀 주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 : 경상북도



우리 땅 독도!

경상북도의회가

지킴이입니다.





경북 의정활동

GYEONGSANGBUK-DO
Provincial Council

Vol. 69 Contents

| 열린의정구현 |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04 | 개회사 | 경상북도의회의장 이상호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06 | 제247회 임시회, 제248회 정례회

의회소식

08 | 의회소식

상임위원회 활동

14 | 의회운영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문화환경위원회 | 농수산위원회 | 건설소방위원회 | 교육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

2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5분 자유발언

34 | 김명호 의원 | 구자근 의원 | 이경임 의원 | 최학철 의원
| 김희원 의원 | 변우정 의원 | 이영식 의원

도정질문 답변요지

41 | 전찬길 의원 | 정두욱 의원 | 박태환 의원
| 박성만 의원 | 구자근 의원

의원 동정

46 | 의장단 동정
48 | 의원 동정

어서오세요! 경북!

60 | 즐거움이 있는 경북 여름 속으로~
| 나무숲 여름향기 가득한 의성 빙계계곡
| 태고의 자연 그대로 오롯한 신비의 섬 울릉도·독도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64 | 언론보도 | 2011. 4 ~ 2011. 7

경북의정활동 2011. Summer | Vol. 69

| 발행일 2011년 5월 24일 | 발행처 경상북도의회 | http://council.gb.go.kr

| 주소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 | Tel. 053-602-5113 | Fax. 053-602-5120

제24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 회 사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길 기대



경상북도의회회장 이상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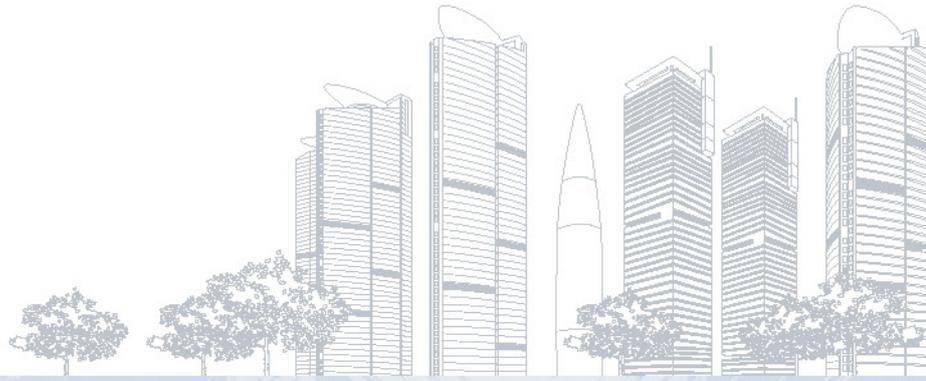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이영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제248회 제1차 정례회가 열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 동안, 우리 300만 도민의 숙원인 국제 과학
벨트 유치를 위해 同 지원조례 제정, 특별위원회
구성, 유치 촉구 결의문 채택 등 의회차원에서 다
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김관용 도지사의 단식투쟁과
범 시·도민 총궐기 대회에도 불구하고 영남권
신 국제공항 계획 철회에 이어 대전·충남권으로
과학벨트 거점 지역이 결정된데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가 없어 지난
5월 17일 비상 의원총회를 개최, 향후 공동 대응
책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는 김관용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와 열정에 존경과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9대 도의회가 개원한지 벌써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총 124건의 의안과 32건의 민원을 처리하여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 함은 물론, 도민의 목소리를 도정에 반영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과 역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도,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며 2010 회계연도 결산승인을 비롯한 의안 처리와 도정 질문의 기회를 통해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길 기대합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도, 다가올 장마에 대비한 풍수해 예방대책 마련과 각종 자연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 드리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10일



회기별 주요의정활동

제 247회 임시회

경상북도의회 제247회 임시회는 2011년 5월 2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5월 13일까지 12일간의 회기 동안 2차의 본회의, 6회의 상임위원회와 3회의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5월 2일(월)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24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산회하였으며,

휴회기간인 5월 3일부터 5월 12일까지 1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구제역·AI·대설피해자에 대한 지역자원 시설세 감면 동의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유치 재촉구결의안 등 14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제247회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제 248회 정례회

경상북도의회 제248회 정례회는 2011년 6월 10일 오전 11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6월 24일까지 15일간의 회기 동안 4차의 본회의와 연 19회의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례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 보면 제1차 본회의는 6월 10일(금)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제248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10 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 등 5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산회하였으며,

휴회기간 중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 5일간은 각 상임 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였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1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전찬걸·장두욱 등 2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였으며,

제3차 본회의는 6월 1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박태환·박성만·구자근 등 3명의 의원이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였다.

휴회기간 중 6월 18일부터 6월 22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였으며, 6월 23일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를 하였다.

제4차 본회의는 6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도내 원전 시설 수명연장계획 전면 철회 촉구결의안, 대구취수원 구미 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 농업재해 지원 대책 건의안,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제248회 정례회를 폐회하였다.

의회소식



☎☎☎ 이상호 의장은 4월 6일 대구엑스코 신관에서 개최된 제8회 국제그린에너지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이상호 의장은 4월 20일 금오공업고등학교에서 개최된 경북도기능경기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 이상호 의장은 4월 28일 경주황성공원에서 개최된 '제11회 경주신라도자기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여 신라 도자기의 우수성에 대해 경청하며 세계적인 우수한 문화유산으로 보존, 발전되기를 기원했다.

♣♣♣ 이상호 의장은 4월 29일 경주 성동시장에서 도의회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재래시장 장보기 행사를 가지고 시장상인들의 애환을 경청하고 격려했다.



♣♣♣ 이상호 의장은 5월 3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경북 마을평생교육지도자 한마당 다짐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상호 경북도의회 의장과 장경식 과학벨트유치특위 위원장은 6월 13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국제과학 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이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결정될 경우 강력한 저항을 하겠다고며 삭발을 했다.



경상북도의회는 6월 23일 호텔인터불고 컨벤션홀에서 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을 맞아 '경북도의회 의정활동 성과와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경북도의회 부활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의회소식



황상조 부의장은 4월 4일 대구미래대학 평생교육원에서 복지대학생 700여 명에게 '고령화 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정책'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황상조 부의장은 4월 21일 구미 경상북도새마을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새마을의 날 제정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송필각 부의장은 5월 14일(금) 구미시 구미코에서 열린 제10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공급을 위해 애쓰는 식품업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송필각 부의장은 상주시 도남동 낙동강 하중도에서 희망의 숲 조성을 위한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하여 낙동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기원했다.

상임위원회 활동

의회운영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유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 가결 및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심사



윤창욱 위원장(구미)



이정호 부위원장(포항)



강영석 위원(상주)



구자근 위원(구미)



김명호 위원(안동)



김하수 위원(청도)



김희원 위원(칠곡)



나기보 위원(김천)



박권현 위원(청도)



박명훈 위원(경주)



서정숙 위원(비례)



이경임 위원(비례)



이영식 위원(안동)



정영길 위원(성주)



황이주 위원(울진)



Steering
Committee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윤창욱)는

제 247회 임시회 기간 중인

● 제24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위원장 윤창욱)를 2011년 5월 2일 개최하여 '제248회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 과 영남권의 현안사항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시켰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특별위원회는 정부가 6월말에 발표 예정을 앞두고 경상북도(G)·울산(U)·대구(D)를 아우르는 3개 지역에 유치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특별위원회' 를 설치 운영하고자 함이다.

심사과정에서 윤창욱 의회운영위원장은 '경상북도를 비롯한 울산· 대구는 기초과학 연구기반, IT 산업기반, 정주여건 등을 골고루 갖추고 있는 과학벨트의 목적 실현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번에는 정부가 꼭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공명정대한 결정을 바란다' 는 강한 메시지를 남겼다.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했으며,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단, 활동기간 이전에 유치가 확정되면 특위는 종료된다는 내용과 그 업무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의안발의 등 의정활동 전반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5월 13일 개최하여 시급 현안사항인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을 심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 소속된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법인 등의 임원을 도의회 및 위원회에 출석시켜 사업계획, 사업성과 및 예산집행 등에 대한 내용을 듣고,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행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을 확대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과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이 출자·출연한 법인 중 일부 기관의 임원으로 확대하는 3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심도있는 심사·토론 결과 전반적인 문구수정 및 안건 조정을 위하여 유보결정하고 제248회 정례회 때 재심사토록 결정했다.

제248회 임시회 기간 중인

● 제248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2011년 6월 16일 개최하여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249회 임시회 회기 협의의 건 심사와 지난 회기에 유보하였던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심사 가결하였다.

먼저 결산분야에서는 의회사무처소관을 심사하면서 도민이 낸 세금을 헛되이 쓰지 않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한 예산편성과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으며, 제249회 임시회 회기(2011년 8월 23일 ~ 9월 6일까지 15일간) 일정을 협의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다.

또한 지난 회기에 유보하였던 '경상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재심사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조문 문구 중 '관계 공무원의 범위' 를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 로 하고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 소속된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법인 등 임원의 출석·답변할 수 있는 장소를 상임위원회로 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교육청에 소속된 지방공사 및 출자·출연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감독을 하게 된 계기를 마련하였다.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관련 규정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정해 나갈 방침이라고 윤창욱 의회운영위원장은 밝혔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획경제위원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및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



장경식 위원장(포항)



황이주 부위원장(울진)



김세호 위원(비례)



김희수 위원(포항)



도기욱 위원(예천)



박성만 위원(영주)



박진현 위원(영덕)



윤창욱 위원(구미)



정영길 위원(성주)



한혜현 위원(영천)



황상조 위원(경산)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장경식)는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인

● 5월 2일 제1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유치 특별위원회에서 300만 도민과 더불어 국가미래발전의 초석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공명정대한 사업추진을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하였다.

5월 3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장경식 위원장 외 6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유치 촉구 결의안을 심사하였다.

경상북도를 비롯한 대구광역시와 울산광역시는 기초 과학이 발달되어 과학벨트의 목적 실현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어 경북·대구·울산 지역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입지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결의안이 주요내용이다.

제1차 상임위원회에서는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하였다.

주요 심사내용은 산림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수목원 기능이관 및 산림생태과학원을 산림자원개발원으로 명칭



변경,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개방형 직위 정원조정, 위임사무 신규지정, 사무의 삭제, 자구수정, 명칭변경 부서의 정비 등, 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것으로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심사의결 했다.

특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유치촉구결의안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에 관한 행정·재정적 지원 토대 구축 및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최적지인 동해안 지역에 유치를 촉구하는 중앙정부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 전달의 의미로, 매우 바람직하며 시의 적절하다는 평가이다.

5월 4일 버스운송조합의 건전한 발전 및 도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향상 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경북 버스운송조합과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들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최근 버스운송 실태 및 앞으로 전망, 버스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방안, 이용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향상 방안에 대하여 진지하고도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서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5월 9일 최근 일본원전 사태로 야기된 월성원전 및 방폐장의 각종재난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경주 월성원자력 본부 및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방폐장) 등을 방문하여 안전대비 점검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경주시 양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김상왕 양북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민대표들과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계획 철회촉구에 대한 의견청취 및 월성원전·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월성원자력본부 및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과 간담회 시 “재난은 멀리 있지 않고 항상 가까이 있다”며, 도민들이 지진·해일 등 안전에 대하여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강화, 정기점검실시, 시설보완 등 안전에 최선을 다해 달라며 당부하였다.

제248회 정례회 기간 중인

- 6월 13일~14일 2일간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는 공보관실, 미래전략기획단, 기획조정실, 일자리경제본부, 투자유치본부 소관에 대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의결했다.

상임위원회 심사 시 해외관련 경북도정 및 의정활동 홍보, 지역언론종사자 네트워크 강화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관련 홍보의 시의 적절성, 경마공원 추진에 대한 홍보활동 등에 관하여 질의하고, 지방 언론사와 지역의원들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도정홍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하고, 또한 일부 언론사의 도정 및 의정활동 내용을 왜곡 보도하는 사례가 있다며, 향후 이러한 사례 발생시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도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론사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과 관련하여 예비비 지출의 적정성, 타당성에 대하여 질의하고, 일부 사업의 예비비 지출 사유의 미흡성을 지적하고, 향후 예측 가능한 사업은 예산에 편성하여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요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투자유치 확대 추진 등에 대하여는 해외시장 교류확대 및 해외기업 유치활성화, 전통시장 살리기, 일자리 창출, 청년실업 문제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도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활성화 및 서민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6월 23일 제3차 상임위원회에서는 도내 원전시설 수명 연장계획 전면철회 촉구 결의안을 심사 의결했다.

최근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도내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이 지진, 해일 등 각종 재난에 대하여 불안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은 월성원전 1호기를 연장하려 하고 있으므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도내 원전시설의 수명연장계획은 안전성이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지 않는 한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심사 의결하고, 제248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 했다.

상임위원회 활동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1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조례안 등 심사



권영만 위원장(봉화)



김하수 부위원장(청도)



구자근 위원(구미)



김영식 위원(경산)



김종천 위원(영주)



나현아 위원(의성)



송필각 위원(칠곡)



이경임 위원(비례)



채옥주 위원(포항)



Administration Health &
Welfare Committee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인

- 5월 3일 제1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구제역, AI, 대설피해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는 수정의결 하였다.
이어 5월 4일에는 경북학숙과 경북여성정책개발원을 현지 방문하여 대상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운영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제24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 6월 13일과 6월 14일에 제1·2차 상임위원회를 열고 감사관실, 보건복지여성국, 행정지원국, 공무원교육원, 경북도립대학에 대한 2010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6월 15일에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포항의료원과 안동의료원에 현지방문을 실시하여 2010년 행정사무감사 이후 개선사항 등에 대해 점검하고, 공공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6월 23일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조례안 1건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 발의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였다.



상임위원회 활동

문화환경위원회

구미취수원 이전 관련 특별 결의안, 울릉도·독도해상 국립공원 지정반대 결의안, 조례안 4건 심사



장세현 위원장(포항)



이영식 부위원장(안동)



김기홍 위원(영덕)



김말분 위원(비례)



김창숙 위원(비례)



박병훈 위원(경주)



배수향 위원(김천)



이시하 위원(문경)



이정호 위원(포항)



전인철 위원(구미)



전찬걸 위원(울진)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세현)는

경상북도의회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

- “울릉도·독도해상국립공원 지정 반대 결의안에 대한 동의의 건”과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한 심사와 조례안 3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을 하였다.

▶ 먼저, 5월 11일 1차 상임위에서는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 소속 의원 10명이 울릉도·독도 해상국립공원 지정 요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공론화 자체를 결사반대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울릉도·독도해상국립공원 지정반대 결의안”으로 채택하여 국회와 중앙관련부처 촉구했으며,

4월 21일 구미반추위로부터 제출되어 상정된 “대구시 구미취수원 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의는 지난해 의회차원에서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고, 대구와 경북이 공동으로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발표에 올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심의보류 하였다.



Culture & Environment Committee

또한, 전국 최초로 우수 임업인 및 기관단체를 발굴·시상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산림대상 조례안과 우리지역이 70% 이상인 산지지형인 점을 감안하여 경상북도 임업육성 및 산촌지원에 관한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고, 지난 제245회(2월 10일) 임시회 기간에 심의유보되었던 도내 저소득 계층 문화복지 확대하기 위하여 발의된 '경상북도 문화 바우처 조례안'에 대하여 예산 수반 등의 문제로 수정가결 하였다.

▶ 현지확인(5월 4일)에서는

지난 2007년 4월 국군체육부대 문경으로 이전확정에 따라 진행 중인 군인전용체육시설과 부대시설 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하면서, 차질 없이 부대이전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당부와 더불어, 5월 6일부터 세계군인스포츠위원회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2015 제6회 세계군인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마지막까지 힘을 써달라고 당부했으며,

이어 전통찻사발 축제 현장을 방문, '찻사발에 담긴 천년 사랑'이란 주제로 진행 중인 찻사발 공모대전과 16개국에서 23명이 참여하는 찻사발국제교류전, 기획전시, 체험행사 등 다채로운 행사를 관람하고 국가지정 우수축제인 문경 찻사발 축제를 올 연말 평가준비를 철저하게 하여 우리나라 최우수 축제로 승격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축제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경상북도의회 제248회 정례회 기간 중

- 문화관광체육국, 보건환경연구원, 환경해양산림국과 관련 3개 사업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3건과 조례안 1건, 결의안 1건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심사에 있어서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으로 문화·예술 행사 등이 취소 또는 축소함에 따라 많은 예산의 불용액이 발생 되었다고 하지만,

일부 불용액이 과다한 사업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철저한 계획으로 불용액을 줄여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으며, 특히,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들은 향후 예산 편성시 좀 더 정확히 소요예산을 산출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줄 것을 주문 하였으며,

▶ 조례안 심사는

우리지역 문화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담 육성할 문화콘텐츠 진흥원 설립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문화콘텐츠 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 심사로서 조례안 제5조의 진흥원장의 선임과 관련하여 사전에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의견과 이와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 다른 조례와의 형평성 검토 등을 위하여 심의 유보하였다.

▶ 청원의 건 심사는

"대구취수원 구미이전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청원"의 건으로 제247회(5월 11일) 회의에서 1차 심의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지난해 11월 12일 우리도의회 의장과 대구광역시의회 의장과 간담회 시 반대의를 밝혔고, 같은달 15일 제244회 정례회에서 반대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기 때문에 경상북도지사가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집행부로 이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견서를 채택 하였다.

▶ 현지확인(6월 13일~15일)에서는

제주도 해녀박물관을 방문하여 독도에 거주하였던 해녀들의 흔적들을 찾아보고, 이어 삼다수 식수제조 공장을 방문하여 식수가 제조되는 공정들을 살펴보는 등 앞으로의 물 부족에 대한 대안을 찾기 위하여 진지한 고민들이 있었을 뿐 아니라,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여 관광자원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 도에 접목하여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고, 다시 찾는 관광명소로 승화시키기 위한 방안들에 대하여 모색하였다.

상임위원회 활동

농수산위원회

당면 농정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과 특별대책 마련 촉구 및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농수산 사업현장 현지확인



이상용 위원장(영양)



박권현 부위원장(청도)



강영석 위원(성주)



김대호 위원(구미)



나기보 위원(김천)



박기진 위원(성주)



변우정 위원(구미)



이왕식 위원(의성)



정상진 위원(예천)



최학철 위원(경주)



한창화 위원(포항)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이상용)는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인

● 5월 11일에는 의성지역 농수산업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다양한 의견수렴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오전에는 의성 신물질연구소를 방문하여 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희귀식물 증식, 천연신물질 연구개발 등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앞으로 자생식물의 고부가가치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농업인의 새로운 소득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오후에는 원예브랜드 육성사업장 (주)청아띠를 방문하여 원예브랜드 사업추진 현황 및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고춧가루 생산공장 시설을 직접 확인하였다.



제248회 정례회 기간 중인

- 6월 13일에 농수산국 및 농업기술원 관계관을 출석 시켜 당면 농정현안 사업에 대해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다.

농정현안 대책보고회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 이후 가축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고, 연초 폭설 및 저온 등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대책이 미흡한 가운데 쌀값, 농자재 가격 상승과 양파 및 소값폭락 등 농업부문 가격이 불안정하고 농업 환경이 어려운 현실에 대하여 지방단위 차원의 특단의 농업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축산산업진흥책, 농산물 가격안정화를 위한 학교 급식지원센터 설치 지원, 농작물재해 피해농가 특별영농비 지원, 농작물재해보험료 국비지원 상향 등이 포함된 “농업 재해 지원대책 건의안”을 농수산위원회 제안으로 채택 하였다.

- 6월 14일에 2010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예산집행 상황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이날 심사에서 농수산국 세출예산 6,557억 9천7백만원 중 이월액 56억 2천3백만원과 불용액 65억 4천6백만원이 발생한 것과

농업기술원 세출예산 418억 3천1백만원 중 불용액 1억 6천6백만원이 발생한 것을 지적하면서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시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6월 15일에는 경주지역 농수산 사업현장을 점검 하였다.

오전에는 경주 안강읍 사방리에 있는 시설채소 연중출하 시범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농민들의 진솔한 목소리를 청취하고 시설채소 단지를 견학하였다.

또한 천북면 신당리에 소재하고 있는 경주 희망농원복지 협동회를 방문하여 양계농가의 어려운 실정과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희망농원 대표자(김용원)는 양계농가의 자활자립 및 계란유통구조 개선사업으로 계란 선별장 및 저장창고 건립을 건의하였고, 농수산위원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오후에는 경주수산물위판장 건립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추진상황과 주변 어민들을 격려하고 수산물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어민들의 소득향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6월 23일에는 경상북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였다.

본 조례안은 2010년 10월 신태주(전농경북도연맹의장) 외 1명이 도내 주민 23,080명의 연서를 통해 접수된 주민조례 제정 청구건으로서 지금까지 집행부와 농업인단체와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시행상의 문제점, 정책 변화에 대한 분석, 예산조달 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 용역, 공청회 등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유보 의결하였다.



상임위원회 활동

건설소방위원회

의정활동에 관한 전문지식 배양을 위한 연찬회 개최 및 현장속으로의 의정활동 실시



고우현 위원장(문경)



김명호 부위원장(안동)



곽광섭 위원(고령)



김수용 위원(영천)



김희원 위원(칠곡)



윤성규 위원(경산)



이용진 위원(울릉)



장두욱 위원(포항)



장영석 위원(구미)



한재석 위원(상주)



홍진규 위원(군위)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고우현)는

제248회 정례회 기간 중

- 건설도시방재국, 도청이전추진본부, 낙동강살리기 사업단 및 소방본부의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여 원안의결하였으며,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와 이월사업 및 불용액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지역 균형 개발 및 재난예방, 차질없는 도청이전, 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성공적 추진 등을 위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도 당부하였다.



▶ 2010회계연도 세출결산(안) 심사결과를 보면

건설도시방재국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7,489억 4천 5백만원, 지출액 6,863억 6천7백만원, 이월액은 611억 4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4억 7천4백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4억 7천9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379억 2천4백만원, 지출액 307억 1천1백만원, 이월액은 8억 6천2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은 63억 5천1백만원이다.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은 예산현액 150억 8천7백만원, 지출액 12억 6백만원, 이월액은 138억 3천6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천5백만원이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은 예산현액 82억 8백만원, 지출액 79억 4천3백만원, 이월액은 1억 9천2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천3백만원이다.

소방본부 소관은 예산현액 1,776억 2천3백만원, 지출액 1,741억 5천2백만원, 이월액은 29억 9천4백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7천6백만원이며, 예비비 지출액은 8천7백만원이다.

- 6월 7일부터 6월 8일까지 이틀간 경남 통영시 소재 충무마리나리조트에서 개최한 연찬회는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에 위탁하여 실시하였으며, 첫째 날은 20여년간 국회 전문위원으로 재직하였고 현재는 지방의회 세미나 강의와 자문 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서우선 박사(행정학)를 초빙하여 강의를 청취하였다.

강의 내용은 지방의회의 예산·결산 심사기법과 행정사무감사·조사의 핵심착안 사항 등에 대하여 사례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하였으며, 질의와 답변시간에는 활발한 질문과 토론을 통하여 의정활동 전문지식 배양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둘째 날에는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한마음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남해 외도 및 해금강을 탐방하고 이어 거제포로수용소를 답사하여 6·25 당시 포로수용소 상황을 상기하고 안보의식을 고취하였다.

건설소방위원회 고우현 위원장은 이번 실시한 연찬회는 위원회별로 특성에 맞는 강의내용을 선정 실시함으로써 위원들에게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5월 3일 충남도청 이전지를 방문하여 관계자들로부터 도청이전 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신축 중인 신청사를 둘러 보았으며, 도청이전에 따른 제반 현안문제 등에 대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는 서로 긴밀히 협조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 5월 4일에는 낙동강살리기사업 제24공구 칠곡보 건설현장과 제28공구 하천 준설 및 농지 리모델링사업 지구를 방문하여 사업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국책사업인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완벽한 시공 및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6월 15일에는 생태하천조성사업 현장인 포항시 흥해읍 소재 곡강천을 현지 방문하여 관계자들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청취하고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지역주민들과 사업추진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였다. 수렴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에 반영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과 완벽한 시공으로 생태 및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상임위원회 활동

교육위원회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 제정,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심사



김영기 위원장(청송)



서정숙 부위원장(비례)



김원석 위원(교육1)



박태환 위원(교육5)



심정규 위원(비례)



이달 위원(경주)



최우섭 위원(교육2)



추재천 위원(교육3)



홍광중 위원(교육4)

Education Committee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영기)는

제247회 임시회에서

- 상임위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고 특수학교 4개교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였다.

제1차 상임위 회의(5. 3)에서는

- 경상북도교육청 공익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안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는데 제정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지금까지 공익신고 보상금제를 내부 신고자에 한정하여 규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상위법인 조례로 격상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법령의 수입에 의한 위임조례가 아니라, 경상북도교육감 스스로가 교육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는 뜻을 담은 자치조례이다. 그 규율 사항은 외부에도 효력이 미치게 되고 조례 도입으로 청렴에 대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경각심을 심어 주려는 선언적·상징적인 효과도 있다할 것이다.

실질적인 효과 거양을 위해서는 지역주민에게도 어린 공익신고 경로를 이용하여 직접 신고할 수 있다는 점과 이 조례가 신분 노출에 대한 비밀보장 장치가 잘 되어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성 등을 주문하면서 적절한 조례안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다.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 환경 변화로 기능이 폐지된 직속기관의 분장 사무를 정비하며, 학생과 교직원들의 심신수련 및 여가선용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의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경상북도학생해양수련원은 오래전부터 학생, 교직원의 심신 수련과 여가선용 공간으로써 그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해양 수련기관이라고 보고 경상북도 영덕군에 설치하고,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컴퓨터 및 멀티미디어 교육은 위탁하지 않고 자체에서도 연수가 가능하도록 기존 컴퓨터 연수기관을 계속 존치키로 하여 수련원의 업무를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 이를 일부 변경하여 수정 가결하였다.

현지확인(5. 11~12)에서는

- 도내 특수학교 4개교(안동영명학교, 안동진명학교, 상주 상희학교, 구미 해당학교) 및 도교육청 이전건립 부지를 방문하여 현안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였다.

제247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 6. 1~6. 2(1박 2일)간 울진 덕구온천 호텔에서 기획경제 위원회와 공동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 강화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2011년도 의원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제248회 임시회에서는

- 상임위 소관 2010년도 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회계 결산, 2010년도 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 기숙형 고등학교에 대한 현지 확인 및 결의안 1건을 심사 하였다.

제1차 상임위 회의(6. 13)에서는

-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복지기금회계 결산 심사는 기금 시행원년으로 교육비 특별회계 25억원을 출연기금으로 하여 교직원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전세자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직원 130명에게 대부금으로 1인당 최대 2,000만원을 2년간 무이자로 지원하여 주거 복지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향후 기금의 확충으로 대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하고 전세자금의 안전장치가 미흡하다고 보고 재정보증 등을 통한 대책마련을 추구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 2010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에서

세입부분은 예산현액 3조 2,866억 5,900만원 보다 202억

2,900만원이 많은 3조 3,068억 8,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99%인 3조 3,066억 8,300만원을 수납한 것은 세입금 수납에 많은 노력을 한 결과로 판단하였고,

세출부분은 예산현액 보다 4,183억 9,200만원이 적은 2조 8,682억 6,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 1,406억 9,900만원 발생에 대하여 사업계획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와 사업 조정 등을 통해 불용액 규모를 줄임으로써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것과 다음연도로의 이월액이 527건(명시이월 216건, 사고 이월 311건)에 2,776억 9,300만원(명시이월 1,355억 5,500만원, 사고 이월 1,421억 3,800만원)이나 발생한 것은 보다 계획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장 자격연수비 3억 8,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 7,200만원을 지출하고 요구액의 55.1%인 2억 1,100만원을 불용 처리한 것은 소요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에는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하여 집행할 것을 추구하고 원안 가결하였다.

현지확인(6. 14~15)에서는

- 기숙형고등학교 4개교(칠곡 약목고, 성주고, 군위고, 의성 안계고)를 현지방문하여 도의회 차원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운영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제2차 상임위 회의(6. 23)에서는

- 경상북도의회 국사교과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필수과목 채택 및 국사교육 강화 촉구 결의안 채택은 정부의 2011. 4. 22 고등학교 국사 교육 강화 계획 발표가 실천에 미흡하다고 보아, 경상북도의회 송필갑 의원 외 46명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정부의 국사교육 강화 방안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국사과목을 대학수능 과목에는 물론 대학 입시에서도 대신 성적으로 반영하여야 하고, 각종 5급 공무원 및 기타 공무원 공채시험과 나아가 사회 취업시험에도 반영되도록 연계하여,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관계 부처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교육과학기술부 외교부 법무부 등에 전달하기로 하고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특별위원회 활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회계연도 결산 심의



박병훈 위원장(경주)



정영길 부위원장(성주)



김기홍 위원(영덕)



김영식 위원(경산)



김창숙 위원(비례)



김희수 위원(포항)



나현아 위원(의성)



박태환 위원(교육5)



배수향 위원(김천)



이왕식 위원(의성)



장영석 위원(구미)



정상진 위원(예천)



추재천 위원(교육3)



한재석 위원(상주)



한창화 위원(포항)



Special Committee of Budget & Accounts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병훈)는

- 경상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경상북도교육청 특별회계에 대한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였다.

제248회 정례회 기간동안

-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 교육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거쳐 원안가결하였다.

- 이번에 심사한 결산안 규모는 경상북도의 경우 경북도의 경우 세입은 총 5조 7,843억원, 세출은 5조 4,657억원이며, 도교육청은 세입 3조 3,067억원, 세출은 2조 8,638억원이다.

- 금회 결산심사에서는 3일간의 일정으로, 전체적인 예산 점검으로 세입결손 방지대책과 세출에 있어서 집행의 적정성과 이월, 불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 원인, 구제역 확산방지 대책 비용,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비용 등에 사용된 예비비 집행 내역 등 예산 편성단계부터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사전에 정확한 분석을 통하여 예산 집행을 제대로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인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심사는

- 통상적인 의례절차로서의 결산심의를 넘어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도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을 각 부서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극대화하여 집행하고 있는지는 물론 각 심사시간에 비효율적인 경비사용이 없었는지, 예산이 사장된 경우가 없었는지 등에 대하여 분석하고 내년도 예산심의를 반영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민 복지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 심사 기간 중 도본청에 대해서는 세입결손 방지 및 고액 체납자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구제역 등과 관련한 예비비 사용내역, 민간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적정성 등 전반적인 사업에 대하여 꼼꼼하게 따져보고 집중적인 질의를 거쳐 결산내역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 교육청에 대해서는 세입결손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하여 질의하고,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목적 부합 여부, 각종 사업 실시 후 집행잔액 및 이월사업비 최소화 방안과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집중질의하며 예산의 불용 감소대책 마련을 요구하였다.

심사를 마친 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심의 과정에서 도출해낸 결과를 예산 편성단계에서부터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하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예산 집행 상황에 대하여 점검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에 역점을 두어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되도록 하여 도민의 입장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심의 할 것을 다짐하였다.



특별위원회 활동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사업추진상 문제점 지적



채옥주 위원장(포함)



구자근 부위원장(구대)



강영석 위원(상주)



곽광섭 위원(고령)



박권현 위원(청도)



심정규 위원(비례)



이정호 위원(포함)



정상진 위원(예전)



정영길 위원(성주)



Special Committee on
Nakdong River Revival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위원장 채옥주)는

제24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 건설소방위원회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낙동강살리기사업단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 채옥주(포항) 위원장은 근간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인명과 구조물 사고가 빈번하다고 지적하면서 사업 전반을 되짚어보고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면서 본류 하상의 과도한 준설로 하상보호공과 교각 기초들이 들어나고 있고 지류에는 역행침식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 구자근(구미) 부위원장은 해평취수장 붕괴와 관련하여 관계당국이 안일하고 소홀한 대책으로 붕괴사고를 막지 못한 것이 아니냐고 묻고 도에서도 책임소재 등을 명백히 밝혀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하였다.

▶ 이정호(포항) 의원은 주요공정을 6월말까지 완료하려면 시일이 촉박한데 2주밖에 남지 않았는데 최종 마무리할 수 있을지 의문시 된다면서 장마가 예년에 비해 당겨질 것이라는 예보가 있는 만큼 공정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영길(성주) 의원은 지류하천에 역행침식이 발생하면 결국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서 본류하천 사업은 물론 지류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정비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 광광섭(고령) 의원은 우수기에 태풍 등 집중호우 시 얼마나 큰 피해가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남은 기간 낙동강 사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하도 준설사업도 중요하지만 하상보호공 설치 등 제반 하천안전 시설 설치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특별위원회 활동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주민대책위원회와 간담회 개최



박진현 위원장(영덕)



도기욱 부위원장(예천)



김명호 위원(안동)



김세호 위원(비례)



김종천 위원(영주)



변우정 위원(구미)



이시하 위원(문경)



이영식 위원(안동)



홍광중 위원(교육4)



Special Committee of Provincial
Building Removal Support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진현)는

제247회 임시회 기간 중인

● 5월 6일 안동시 풍천면 소재 도청이전 신도시사업단 회의실에서 제4차 회의를 개최하여 도청이전추진본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안동·예천의 주민대책위원회, 경북개발공사, 집행부 관계자들과 이주민 대책에 관련한 간담회도 개최하였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 박진현(영덕) 위원장은 도청이전을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연초 도청 및 의회 신청사 설계·시공업체가 이미 선정되었고 계획대로라면 이번 달에 착공을 하여야 하나 토지 감정 등의 절차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 관련사항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 되지 않아 착공시기가 다소 늦음을 지적하고 도청이전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특위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약속하였다.

▶ 김명호(안동) 의원은 경북개발공사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파견공무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행정타운 부지에는 행정기관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시간에 교통혼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교통망 확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홍광중(안동) 교육의원은 교육청이 입지될 부지도 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유관기관 이전도 계획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주문하였으며, 자족기능 보강으로 타지역의 인구유입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이영식(안동) 의원은 행정타운 부지 지역주민들의 보상 관련 요구사항들이 우선 해결되어야만 착공 등 후속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보상액과 감정평가액에 많은 차이가 있을 경우 합의점 도출 방안과 이주민에 대한 이주대책의 조속한 수립을 당부하였다.

▶ 김종천(영주) 의원은 행정타운 부지의 토지보상이 원만히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상 강제수용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금년내 착공이 어려워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원칙에 입각해 보상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다. 또한 신도시 조성 기간이 지연될 경우 발생하는 예산 증액 문제도 반드시 사전에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 김세호(비례) 의원은 신도시 조성에 따른 토지분양 등이 잘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인지 의문시 된다고 지적하면서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세울 것을 주문하였으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실용적인 행정타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설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당부하였다.

▶ 도기욱(예천) 의원은 도청이전 관련 지휘·통제라인을 잘 구축하여 사업상 문제점 등에 대한 정보교류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집행기관, 시공사 등이 함께하는 정례적 회의를 개최할 것을 주문하였다.





■ ■ ■ 2011년 5월 2일(월) 제2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새로운 도청소재지 미래환경 관련

김명호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안동시)

본 의원은 우리 도가 건설하고 있는 새로운 도청소재지의 미래 환경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제 곧 역사적인 도청 신도시 건설 사업이 시작됩니다. 토지보상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됨과 동시에, 도청과 의회 신청사 건축공사가 착공됩니다. 이어서 신도시 전체에 대한 밀그림 설계가 이루어지면, 약 80여 개 기관들과 주거단지가 들어설 부지가 최종 결정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4년 7월 검무산 아래에서 개청하게 될 도청 신도시는 세계에서 으뜸가는 친환경 생태도시로 만들어야 도시경쟁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도청 신도시를 둘러싼 안동-예천지역의 농촌 일대를 광역 친환경농업지구로 지정하고 생태마을로 육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화학비료와 농약으로 점철된 기존의 관행농업을 친환경 농업으로 전환하고, 친환경농산물 전량을 계약재배로 유통시켜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친환경농업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기존의 전통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한 친환경 외식 관광사업도 병행하여 추진케 한다면, 단순 친환경농업인 1차 산업을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산업인 6차 산업으로 육성하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즉, 생산과 가공, 서비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선순환 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농가에는 고소득을 보장하고, 지역사회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수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장차 신도시가 완성되는 2030년쯤이면, 경북 도청소재지가 명실공히 친환경 녹색도시의 모델, 최고의 생태마을 체험학습장이 될 것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하회마을과 더불어 도청소재지와 생태마을을 경험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관광객이 몰려오는 새로운 명승지가 될 것입니다.

낙동강 700리 최상류의 수질을 지키고, 세계문화유산을 잘 가꾸기 위해서라도, 신 도청소재지의 농축산업을 온전히 친환경 생태 농축산업으로 탈바꿈시켜야 할 것입니다.

신도청시대는 안동-예천의 고즈넉한 시골마을, 바로 그런 친환경 농촌의 한 가운데에서 개막되기를 소망합니다.

청사 뒤 검무산에서는 실 새 없이 온갖 새들이 날아들고, 의회청사 앞 공원에서는 갖가지 곤충들을 쫓아다니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부서지며, 그들을 바라보는 노인들의 얼굴에는 따뜻한 미소가 흐르는, 바로 그런 자연친화적이고 생태적인 도청소재지를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2011년 5월 13일(금)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구미광역시취수장 붕괴로 인한 단수사태와 관련한 대책 촉구

구자근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구미시)



저는 오늘 구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8일 오전 발생한 구미광역시취수장의 가물막이 붕괴로 인하여, 5일간 단수로 인한 교통받은 구미시민의 아픈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유 여부를 불문하고 저를 포함한 도의원 모두는 머리숙여 사죄드립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경상북도와 한국수자원공사의 안일한 대응을 질타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을 정비하고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신속한 보상체계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번 단수 사태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구미, 김천, 칠곡지역의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사건의 요지입니다.

지난 8일 오전 6시 20분경 구미시 해평면 광역취수장 인근에 위치한 임시보 가물막이 일부가 유실되어, 하천 수위 저하로 7시경부터 취수가 중단됨으로써, 구미시를 비롯한 김천시와 칠곡군으로 배분되는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구미시민과 김천, 칠곡의 49만 7천명(구미시 391천명, 김천시 8천명, 칠곡군 98천명)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구미국가산업단지의 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 도지사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이번 사태는 천재가 아닌 인재로서, 명확하고 철저한 원인규명을 통하여 원인제공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고,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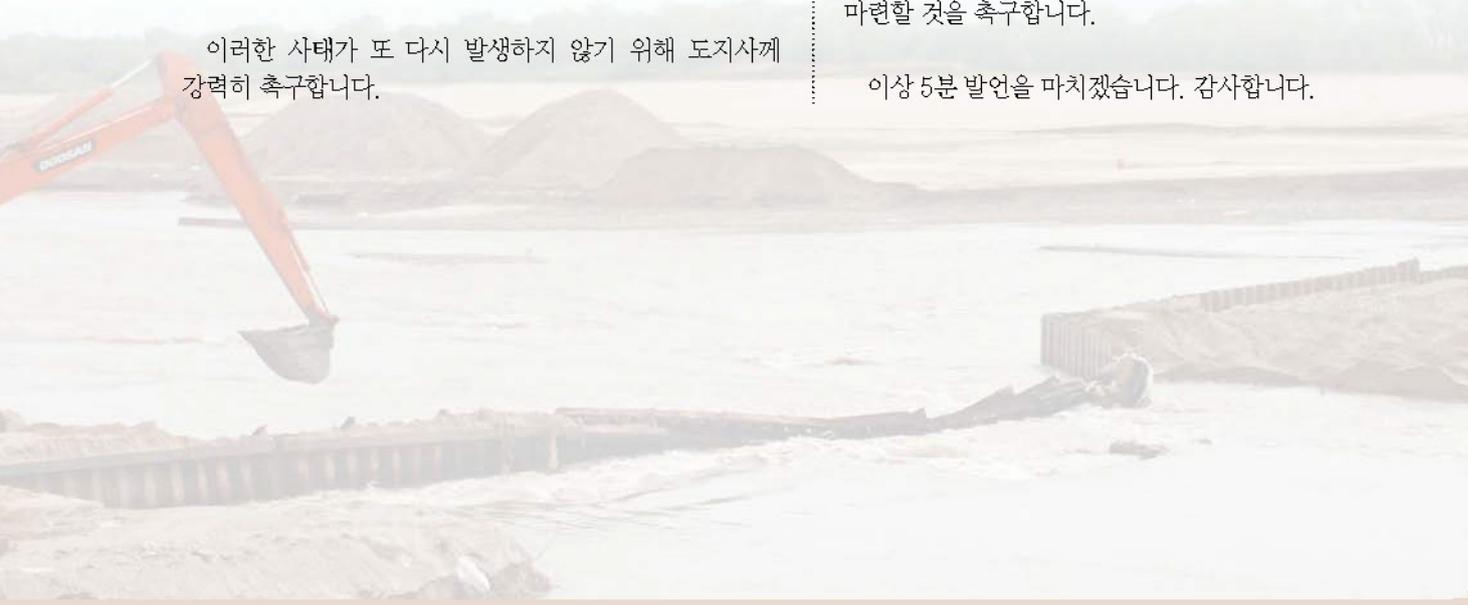
둘째, 경상북도의 위기관리시스템 정비를 촉구합니다. 위기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이고 단시간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이미 지난 겨울 구제역 확산으로 겪은 재산피해와 정신적 피해는 천문학적인 피해와 교통을 주었음에도 위기관리에 대한 경상북도의 대응체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집중호우와 폭설 등과 같은 자연재해와 신종바이러스와 가축전염병 등과 같은 미래에 다가올 위기는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위기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지사께서는 단수로 교통받은 구미시민과 피해를 본 도내 기업체에 진심으로 사과하고, 시민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과 경제적 손실 그리고 기업체에서 조업 중단에 따른 피해에 대한 지원기준과 신속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6월 10일(금) 제2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양성평등 정책실현 촉구

이경임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비례대표)

저는 오늘 양성평등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1세기는 '여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현대사회의 조직이 '여성적 리더십'을 보다 더 요구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 문화산업시대에는 남성적인 육체적인 힘보다는 여성이 지닌 정신적인 능력, 창의력과 다양성, 배려와 포용, 유연성이 시대정신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를 '3W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기후-Weather, 웹-Web, 여성-Woman)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8년 유엔개발계획(UNDP)이 조사한 '여성권한 척도(GEM)'에서 우리나라는 108개국 중 68위이며, 2010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성격차 지수(GGI)'는 134개국 중 104위로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경북도의 양성평등 정책과 관련한 지표들을 보면, 2008년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성평등 종합지수에서 12위이며,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시도별 기획, 예산, 인사, 감사, 실국 주무과 등 주요 부서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16개 시도 가운데 19.5%로 최하위입니다.

그리고 한국여성정치연구소에서 조사한 '성평등 정치지수'는 15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현재, 5급 이상 간부공무원의 수 전체 418명 중 여성은 11명(2.6%)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여성발전기본법에 규정되어 2009년부터 실시한 성별영향평가 교육현황에서도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교육참가율은 418명 중 18명으로 4.3%만이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와 결과들을 보면, 경북도의 양성평등 정책 추진은 매우 소극적인 수준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경북도에서도 나름대로는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보이지 않는 차별적 요소들이 여성들의 조직활동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아울러, 김관용 도지사께서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공약에서 정무부지사를 여성으로 임용하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공약을 한 지 1년이 되어가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공약이 여성 표를 얻기 위한 공약이었던지? 아니면 낙후된 지역의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소신에 찬 공약이었던지?

이제는 실천으로 보여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실천을 기대합니다.



2011년 6월 10일(금) 제2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기후변화 대책 관련

최학철 의원(농수산위원회, 경주시)



본 의원은 경북도의 기후변화 대응관련 대책을 짚어보고 경북도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책마련 및 실천을 촉구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100년간 전세계 평균기온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90년대 이후 평균기온이 약 1.5℃ 정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후 온난화 속도는 지구 전체 온난화 속도 보다 2배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인식하에 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우고 국내 기후변화정책의 선도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의 온난화 대응은 너무나 소극적으로 이루어져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먼저, 기후변화협약 체결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각 지자체 에서는 온실가스 의무감축은 물론 신재생에너지의 생산량 제고가 중요한 당면 과제가 되고 있음에도 경북도의 경우에는 2009년 현재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42만 천toe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전남 160만 2천toe, 경기 92만 천toe, 등에 비하여 낮은 수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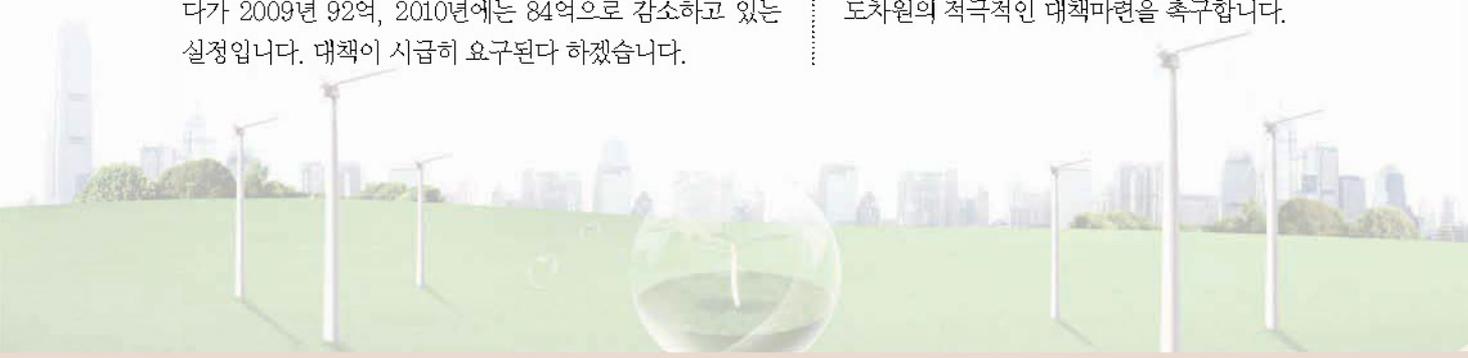
또한, 경북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보다 확대되어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비는 2008년 12억에서 2010년 36억으로 늘어났지만, 최근 3년간 이들에 대한 국비지원을 포함한 예산 투입내역을 보면 2008년의 경우 101억이었다가 2009년 92억, 2010년에는 84억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둘째, 기후변화와 가장 밀접한 분야가 바로 농업분야 입니다. 농업은 자연환경에 매우 의존적이며 농업인 개인이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도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차원의 대응은 기초연구 및 병해충 예찰 모니터링 정도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종합적 대책과는 거리가 먼 상황입니다.

지구 온난화는 현재의 농업생산체계를 송두리째 바꿔 놓을 가능성이 농후한 만큼 급변하는 상황에 철저히 대비 하기 위해서는 피상적 연구에서 탈피하여 중장기적 차원에서 품목별 대응전략 및 신품종육성, 숙기를 조절할 수 있는 재배양식 기술개발 등 보다 체계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연안의 수온이 지난 100년동안 대략 1℃ 가량 상승하였으며, 특히 1980년 대 중반기부터 동해바다의 수온상승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바다의 수온 1℃ 상승은 육지에서 기온 10℃ 상승과 같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바다의 생물종 자체의 변화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수산자원 변화연구는 물론 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래의 동해어업을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발등의 불입니다. 이에 무엇보다 사후 대책이 아닌 선제적 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향 전환과 함께 단순한 문제 인식 차원에서 벗어나 기후변화를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과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 ■ ■ 2011년 6월 10일(금) 제24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고엽제 매립에 따른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김희원 의원(건설소방위원회, 칠곡군)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난 5월 16일 전 주한미군 중장비 사병인 스티브 하우스 씨의 미국 지역방송 증언 내용, 즉 칠곡군 왜관읍 주한미군기지 캠프캐럴에 고엽제를 매립했다는 증언에 대하여 실증 확인 절차 등 문제 해결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문제 해결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바로 세우고, 한미간의 우의와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5월 20일자 신문에 보면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TF팀을 구성하여 적극 대처한다고 하였으며, 경북도 환경해양산림국 관계 공무원은 지역 환경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문가 대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난 2주일 기간동안 고엽제 매립의 정황과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미국 측은 그때마다 말 바꾸기를 거듭하며 의혹만을 증폭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와 경북도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얽매어 쪼들매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경북도의 경우 한미공동조사단이 엄연히 활동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캠프캐럴 부근의 지하수를 채취하여 개인 교수에게 의뢰하여 놓은 상태에서 지역의 유력인사가 전화를 하여도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일부 언론에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보도를 접하고서는

“전화통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어떠한 내용도 아는 게 없다”며 “사실 다이옥신이 검출됐어도 환경부 지침에 따라 발표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말을 하였다니 일파만파 주민

여론은 간과 없이 경북도청의 고급간부의 위기대응능력 수준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는 반성의 기회로 삼고 일당백을 하고 있는 도백의 반이라도 쫓아가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본 의원은 일련의 한미공동조사단의 행태나 SOFA 환경분과회의를 지켜본 결과 대한민국 주권은 오고간데 없고 전통적인 한미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자초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앞서기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며, 미국의 넉슨대통령이 왜 해야 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하여 누군가의 잘못이 있으면 진정한 사과를 하고 고엽제 조사 전에 안전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무분별한 언론보도로 칠곡군민이 생산한 농산물에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고엽제 및 화학물질 유입경로, 보관 장소와 방법 및 종류와 총량, 매립, 이전, 처분 등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둘째, 한미공동조사단에 캠프캐럴 주변 마을대표 및 왜관 주민대표, 능력 있는 환경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합니다.

셋째, 캠프캐럴 인근 마을 등에 대한 지역 및 주민역학 건강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넷째, 칠곡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여론이 왜곡되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부와 경북도는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2011년 6월 24일(금) 제2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부도난 건설사의 대지권 등기 대책 관련

변우정 의원(농수산위원회, 구미시)



주택문제는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주택정책의 지방화는 주거복지 차원에서 두말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침체와 미분양 주택문제는 건설업체의 부도와 지방세수 감소 등의 문제를 연쇄적으로 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속되는 경기침체 속에서 도민들이 내집 마련의 꿈을 안고 피땀 흘려 한푼 두푼 모아 마련한 아파트 조차도 주택건설업체 부도 등의 여파로 소유권이전 문제가 불거져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인한 이중 삼중의 고통을 떠안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부동산정책의 신뢰부재와 지방세수의 손실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택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절차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가 완료된 이후 당해 택지의 지적공부 정리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공공택지개발 시행자에서 택지분양자인 건설사 그리고 개인분양자 순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가능합니다. 즉, 공공택지 상태에서는 개인분양자에게 소유권이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여 실제 분양자들이 납부하여야 할 대지권등기 관련 등록세조차도 징수할 수가 없으므로 지방세수에도 막대한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 IMF 직후에는, 국내 경제사정의 악화와 더불어 건설업체의 연쇄부도가 발생하고, 건설업체의 토지 이전등기절차의 지연으로 입주자의 재산권행사가 제약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1999년 2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개정을 통하여 공공택지개발시행자에서 개인분양자들 앞으로 중간생략등기가 가능하도록 2000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만, 2011년 현재에도 동일한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수많은 국민과 도민들이 있음에도 어떠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경상북도는 「도민과 함께 하는 경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경북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도민들이 수년간 피땀 흘려 마련한 아파트에 정상적인 분양가를 모두 지급하고도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이 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도민들의 아픔을 세심하게 헤아리고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도민의 곁에서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이러한 사안에 대해 우리 경상북도도 스스로 권한과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현재의 어려운 지역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고, 산재해 있는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경상북도에서는 단지 국가 차원에서 해결되어야 할 사안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 심도 있는 이해와 설득을 이끌어 내는 적극적 노력과 도 자체의 자율적 결정 등의 과감한 조치만이 도민의 삶의 질 제고와 부동산 경기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에, 도차원에서 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도세감면 조례를 통하여 부도난 건설사가 납부하여야 할 등기 관련 등록세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 조치하여 서민들이 대지권 등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서민들이 부담하여야 할 이중고와 지방세수의 누수를 막아야 할 것이며,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라도 서민들이 안심하고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 다시 한 번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합니다.



2011년 6월 24일(금) 제24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도청이전 관련

이영식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안동시)

본 의원은 미래 천년 도읍지인 신 도청 소재지 건설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이주민 보상가액 통지가 이루어지고 난 후, 주민들의 애끓는 심정과 향후 대책에 대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8년 6월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의 역사적인 결단으로 10여 년 이상 끌어 오던 경북 도청 이전이 장풍득수형의 명당으로 알려진 검무산 자락의 안동, 예천으로 결정되었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014년 6월 도청 신청사 준공을 위하여 경상 북도와 경북 개발공사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신 도청 이전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3년 전 도청 이전지로 결정되고 난 후, 풍천·호명면 일대의 500여 이주민들은 500년 이상 조상 대대로 살아 오던 세거지를 떠나야하는 안타까움을 뒤로 한 채, 미래 경북의 새천년 도읍지 건설과 옹도 경북의 미래를 생각 하면서 묵묵히 협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5일, 1년간 협의해서 결정된 보상가액 통지문을 받아 든 주민들은 허탈감과 배신감에 말문을 닫은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이나, 공익사업을 진행하면서 가장 해결하기 어렵고,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보상 문제 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만, 이번이 이루어진 보상 가액은 이해 당사자인 주민의 입장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도 납득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첫째, 보상 총액 문제입니다.

경북개발공사는 당초 보상예상가액을 6,200억 원 정도로 예상하였다가, 물권 조사 과정에서 분묘와 비닐하우스 동수가 예상보다 적게 조사되어 5,60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주민들에게 알려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6월 15일 최종적으로 주민들에게 통보된 보상 가액은 예상가액의 55% 정도인 3,080억 원이었습니다.

이는 이전 예정지 330만평을 기준으로 평당 10만원이 되지 않는 보상 가격입니다.

충남도청 이전 예정지는 2년 전인 2009년 보상액이 결정되었으며, 995만㎡에 보상 총 가액은 588억 원, 평당 평균 20만 원 정도이며 경북은 1096만㎡에 보상 총 가액은 3,070억 원, 평당 평균 10만 원 정도입니다.

2년이나 늦게 진행된 경북도청 이전지 보상액이 충남도청 이전지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주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둘째, 감정평가 기준 시점에 관한 의문입니다.

이번 보상가액 결정의 가장 큰 의문은 감정 평가 기준

시점을 2008년 6월 시점으로 하여 결정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보상가액이 결정될 때까지도 주민들은 2009년 6월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왜 2008년 6월 기준으로 결정되었는지 경북도와 개발공사의 성의 있고 진정한 답변을 바라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는 2007년 10월 신설된 토지 보상법 제70조 5항을 근거로 감정평가협회에서 국토부에 질의하여 2008년 6월을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주민들은 그러한 내용을 들은 바가 없으며, 2008년 6월 도청 이전 지정공고를 하고 3년이 지난 2011년 6월 보상 가액을 결정하면서, 3년 전 지정할 당시의 가격을 수용 하라고 하니 기가 막힐뿐이며, 어디에 가서 하소연 해야 할 지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충남도는 2006년 2월 도청 이전 예정지역 공고를 하고 2007년 1월 주민 공람을 하여, 보상시점을 2007년을 기준으로 하였는데

경북도는 2008년 6월 도청 이전 예정지역 공고를 하고 2009년 8월 주민 공람을 하였는데, 보상시점을 2008년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관용 지사님!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엄청난 보상액이 아닙니다.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조상들의 유산이 곳곳에 묻어있는 평생을 살면서 가꾸어 온 문전옥답을 버리고 떠나는 주민들의 애끓는 마음을 헤아려 주셔서, 보상시점이 어떤 근거로 2008년으로 결정되었는지 2008년으로 결정된 부분에 의문시되는 점이 있다면 경북도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재조사하여 주민의 입장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만일 보상시점을 2009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 하였다면 충남도청 보상금액과 비슷하고 주민들의 예상치에 90% 정도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도청이전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부재지주를 제외한 편입지역 주민 410가구 중 1억 미만 보상가구는 133세대, 1억에서 2억 미만 보상가구가 60세대로 전체 47% 가구가 2억 미만의 보상을 받습니다.

2억 미만 보상을 받는 이주민들의 이주 대책 및 생계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도청 이전 특별 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겠지만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1년 6월 16일(목) 제2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내 유산의 발굴, 등재 관련사항 및 산·학 협의체 구성, 조례 제정 방안 등

전찬걸 의원(문화환경위원회, 울진군)

문) 울진 금강송과 같은 세계유산적 가치가 있는 도내 유산의 발굴 및 등재추진을 위한 道차원의 추진방안은?

답)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10건 중 세계문화유산 3건을 경북이 보유(석굴암·불국사, 경주역사유적지구, 한국의 역사마을)하고 있음. 특히, 울진 금강송은 세계적으로 보존해야 할 생태적 가치가 있어 금년 7월 문화재청에 세계자연유산 잠정목록 등재를 신청할 계획이며 선행요건으로 울진군에 '국립 금강소나무 연구센터'를 건립 추진 중에 있음.

문) 동서5축 간선도로중 소천~근남간의 4차로 조기 착공 및 삼척~울진간 고속도로의 조기 건설에 따른 경북도의 견해와 향후계획은?

답) 소천~서면~근남간은 경제적 타당성과 계획교통량을 감안 2차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봉화~울진간 간선도로 기능과 교통사고 위험예방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본 구간을 4차로로 변경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음. 삼척~울진간 고속도로의 조기건설은 포항~영덕간 고속도로의 건설추이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하겠음.

문) 마이스터고 활성화를 위한 전문성 있고 독립된 산·학 협의체 구성 및 조례 제정 방안은?

답) 마이스터고 활성화를 위해 경북 직업교육선진화 방안 5개년 계획에 의거 2015년까지 마이스터고 4개교를 지정·운영할 계획임.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현재 마이스터고는 2교(금오공고, 구미전자공고)로 교과부 훈령을 적용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마이스터고 지정교가 늘어나면 조례 제정을 적극 검토하겠음.

문) 자율형공립고의 본래 취지에 맞는 학교 발전 방안 및 추가 선정에 대한 견해는?

답) 자율형 공립고의 학교 발전을 위하여 매년 자율형공립고의 심사 및 중간 점검을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학교경영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임. 도내 낙후지역 자율형 공립고 추가 선정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목표 100개교 중 97개교가 선정되어 추가 선정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도내 '농산어촌 명품고' 20개교를 선정하여 육성할 계획임.



2011년 6월 16일(목) 제24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연근해 돌고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대책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대책 관련 등

장두욱 의원(건설소방위원회, 포항시)

문) 최근 연근해 돌고래 개체 수 증가로 어획량 급감, 어민 생존권 위협 문제가 발생하는 데 대하여 도 차원의 어업피해 최소화 대책은?

답) 국제적 분위기,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여론수렴 절차가 필요하며 지역 어업인 및 수산기관·단체의 의견과 연구성과 등을 반영하여 중앙정부에 건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업경영안정을 위해 각종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한편, 도차원의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종합 대책을 적극 마련하겠습니다.

문) 해안 침식문제에 대한 정부지원 촉구와 도차원의 국비 확보 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은?

답) 우리 도에서는 지역연안관리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연안침식 실태조사 및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08년) 중에 있음.

도차원의 국비확보를 위해 총사업비 100억 이상 사업은 국가 직접시행을 건의하고, 현행 70% 국비 보조율도 전액 국비 지원을 적극 건의할 계획임.

문) 교통약자 이동편의 대책 및 장애인콜택시 확보 대책은?

답) 향후 5년간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체계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임.

특히 장애인 콜택시 확보를 위해 2012년부터 국토해양부에 국비지원 건의와 함께 도비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장애인 콜택시 보급과 운영은 장애인 단체 등 의견을 들어 수요자인 교통약자가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음.

문) 입시와 성적경쟁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방과후 학교 개선 대책은?

답) 국·영·수 위주의 운영에서 점차 예·체능 비중을 높이는 방과후 학교를 운영하고,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자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반영할 계획임.





2011년 6월 17일(금) 제2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귀농인들의 안정적 정착 관련사항 및 구미지역 고등학교 학생수요여건 관련 등

박태환 의원(교육위원회, 교육5)

문) 귀농인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유입정책과 지원대책은?

답) 유치중심의 귀농·귀촌 정책에서 벗어나 최종 정착·안정까지 고려한 유입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며, 영농체험프로그램 강화,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후계농업경영인 선정육성 등 귀농인들의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문) 부정·불량 비료와 농약의 불법유통 근절 대책은?

답) 농촌진흥청, 도 합동 교체단속을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시군 자체 분기별 지도단속 및 불시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 불량 비료와 농약의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하여 품질검사 및 수시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문) 구미지역 고등학교 학생수용여건 개선방안은?

답) 구미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전입이 많은 구미 인근 지역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진학을 억제하고 구미 옥계지구 고등학교 설립예정부지에 학교신설을 검토할 계획임.

문) 교원의 과다한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도교육청의 대책은?

답) 교원의 과다한 업무를 경감하기 위해 2011년 전자결재 시스템을 전 학교에 전면 실시하고, 교사 친화적인 업무 관련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에듀파인 및 업무관리시스템 절차 간소화 및 간편화를 추진함.





2011년 6월 17일(금) 제2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신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 유치실패에 관한 사항 및 경북의 정체성, 경북의 혼 관련 등

박성만 의원(기획경제위원회, 영주시)

문) 신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 유치실패에 따른 경북도의 대책은?

답) 신공항은 거대한 수도권 중심 논리에 따라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으나, 신공항 재추진을 위해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과학벨트의 경우 유치실패의 아픔이 있으나, 1조 5천억원이 투자되는 D·U·P 연합캠퍼스가 선정되어 경북·울산·대구 과학발전협의회를 통해 적극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문)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방안은?

답) 독도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 강화와 역사적 근거를 통한 대응논리 마련, 국제법적 지위 공고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독도 군대 주둔에 대해서는 현재 2단계 공사 중인 울릉 사동항을 민·군 복합항으로 운영하여 비상사태에 대비하겠습니다.

독도의 선박접안율을 높이기 위해, 독도 방파제 조기 건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문) 동서횡단(울진~영주~신도청이전지~대정·군산~새만금) 철도 건설계획은?

답) 동서횡단 철도는 동서화합과 영호남 균형발전촉진, 물류수송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함. 동서횡단 철도건설 계획이 국가 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임.

문) 경북의 정체성, 경북의 혼은 무엇인가?

답) 경북의 정체성의 기반인 화랑정신, 선비정신, 호국정신, 새마을 정신 등 경북의 정체성과 혼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문) 독도 영유권 교육은 일관성 있게 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한 견해는?

답) 현재 초, 중, 고 교육과정에 독도 교육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영토의 중요성 인식을 위해 다양한 독도 교육을 통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문) 21세기 새마을 정신의 재창조 방안은?

답) 「뉴새마을 운동」 정신을 반영한 교육지원 활동과 뉴새마을 운동 교육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함으로써 새마을 정신의 재창조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1년 6월 17일(금) 제2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구미~경산간 광역철도 사업에 관한 사항 및 초등학교 통학차량 지원 관련 등

구자근 의원(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구미시)

문) 구미~경산간 광역철도 사업 추진계획은?

답) 구미~경산간 광역철도 사업은 대구시와 구미, 경산, 칠곡 등 도시간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우리 도가 건의하여 국토해양부가 추진하는 필수 기반사업임. 그러나, 지난해와 금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각각 10억원을 확보하였으나, 대구지하철 3호선과 환승체계가 변경되어, 현재 국토해양부와 대구시가 협의 중에 있으나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미 사곡역 정차와 광역철도와 일반철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구미~경산구간(61.85km)은 50km로 제한되는 광역철도사업으로 추진이 어려워 일반철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요금은 대중교통통합요금(1,400원)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음.

대구시와 공동추진하고 있는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으며, 대구시와 광역철도망 1단계뿐만 아니라 2,3단계 사업까지 긴밀히 협조하여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 초등학교의 도보 통학 학생에 대한 통학차량 지원 방안은?

답) 「적정규모 학교육성 기본 계획」에 의거 소규모 학교 통·폐합에 따른 폐교 학교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서만 통학차량을 지원하며 그 외 일반 학생들의 통학편의 제공을 위한 차량 지원은 하지 않고 있음.

도보 통학 초등학생에 대한 통학차량 지원을 위해 「통학차량 관리 지침」에 의거 통학차량 보유교를 중심으로 폐교학교 근접지역, 저학년생, 원거리지역 학생의 등·하교 시 우선적으로 공동 활용하도록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과 지자체의 협의를 통해 시내버스 노선 조정·증설 등의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의/장/단

Chair Group



전통시장 활성화 장보기 행사에 참석하여 시장상인 및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

이상호 의장(경주시2, 한나라)은 4월 6일 대구엑스코 신관에서 개최된 제8회 국제그린 에너지 엑스포 개막식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4월 8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경주시의원, 경주시 선거구 경북도의원 및 경주시 관계자와 간담회에 참석하여 국·도비 확보를 위한 대책과 시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4월 15일 국회 의정실에서 박희태 국회의장을 방문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관련 계류 법률(안)의 심사촉구 등 지방분권 관련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건의했다.

4월 16일 상주시 북천시민공원에서 개최된 제3회 대한민국자전거 축전 개막식에 참석, 그린에너지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 당부했다.

4월 20일 경주 현대호텔에서 개최된 글로벌 새마을 포럼에 참석, 새마을 운동 세계화를 위해 경상북도가 앞장 설 것을 당부했다.

4월 20일 금오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경북도 기능경기대회에 참석, 경제발전의 역군인 기능인들을 격려했다.

4월 23일 경주 통일전에서 개최된 경주지역 노사민정 화합 등반대회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4월 28일 경주황성공원에서 개최된 제11회 경주신라도자기축제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신라도자기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며, 우수한 전통문화 자원으로 보존, 발전되기를 기원했다.

4월 29일 도의회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경주 성동재래시장을 찾아 전통시장 활성화 장보기 행사에 참석하여 시장상인 및 관계자들을 위로, 격려했다.

5월 1일 경주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11 경주 WFT 세계태권도대회 개막식'에 참석, 화랑도 정신의 본산인 경주에서 세계태권도대회가 개최된 것을 축하했다.

5월 3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경북 마을평생교육지도자 한마당 다짐대회에 참석, 축사를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배움을 함께 할 수 있는 평생학습 사회를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을 당부했다.

5월 10일 불국사에서 개최된 부처님 오신날 봉축행사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5월 12일 전직 도의원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안압정에서 열린 '제6대 도의원 동기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 의정활동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5월 13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가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입지가 선정될 경우 강력히 저항할 것을 표방하는 항의 식발식을 가졌다.

5월 23일 경주현대호텔에서 개최된 신화랑체험활동 글로벌 포럼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5월 31일 대구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된 경북도의정회 정기총회에 참석, 의정회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해 줄 것을 부탁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6월 3일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개최되는 경북정체성 국제포럼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6월 8일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4회 경주시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 지역발전을 위해 더욱 더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6월 10일 울진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제49회 경북도민체전 개막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군부 최초로 울진군에서 행사가 개최된 것을 축하하고, 경북체육 발전을 기원했다.

6월 14일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개최되는 경주라이온스클럽 창립 42주년 기념행사 및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큰 역할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월 17일 경북도의회 제2별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경북도의회 임업발전연구회 정책연구 간담회에 참석,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6월 22일 포항 포스코 본사 대회의장에서 개최된 2011 경북도장애인 기능경기대회에 참석, 장애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뛰어난 기술을 습득한 장애인들을 격려했다.



「2011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황상조 부의장(경산시2, 한나라)은 4월 14일 경북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경상북도여성기업인 일자리 창출 촉진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마련에 노력하는 여성기업인들의 참여를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여성기업인협회가 앞장서서 도민들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4월 21일 구미 경상북도새마을회관에서 개최된 「새마을의 날 제정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범국민운동으로 거듭나기 위해 새마을지도자들이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4월 22일 포항 구룡포읍민축구장에서 개최된 「제13회 한국수산업경영인 경상북도대회」에 참석, 포항 구룡포항에서 개최된 「어업지도선 경북201호 명명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수산업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5월 26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2011경북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본격적인 고령화시대에 접어든 시점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생활체육 저변확대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노력하는 생활체육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6월 17일 대구리더스클럽에서 개최된 「대구경북연구원 개원 20주년 기념식」에서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대구경북의 싱크탱크로써 세계화의 무한 경쟁시대에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이밖에도 4월 15일 청도상설소싸움경기장에서 개최된 「2011청도소싸움축제 개막행사」에 참석하였으며, 5월 6일 육군3사관학교 충성연병장에서 개최된 육군3사관학교 학교장 이·취임식 및 전역식에 참석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제66회 식목일 및 낙동강 희망의 숲 조성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송필각 부의장(칠곡군1, 한나라)은 4월 5일 상주에서 열린 「제66회 식목일 및 낙동강 희망의 숲 조성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하여 기념식수를 하고, 축사를 통해 다음세대를 위한 산림과 낙동강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4월 21일 경북교통연수원에서 열린 「바르게살기운동 경북도협의회 고유가 극복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고유가 극복을 위한 의식개혁운동을 전개하는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였다.

4월 25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종합예술제 시상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장애를 극복하고 예술적 재능을 함양하는 장애인들을 격려하였으며,

4월 30일 김천에서 개최된 「2011 근로자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근로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건전한 노사 문화 정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5월 11일 안동에서 개최된 「경상북도 청소년지원센터 준공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센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관계자를 격려하였으며,

6월 14일 구미에서 열린 「상이군경회 창립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국가를 위한 회원들의 헌신적인 희생에 감사를 드리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그 밖에도 「경상북도 자율방범연합회 2011년 범도민 기초질서 선진화 다짐대회」(4. 17), 「제10회 식품안전의 날 행사」(5. 13), 「경상북도 가정의 날 및 부부의날 기념행사」(5. 27), 「제11회 경상북도 119소방 동요경연대회」(6. 18)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관계자를 격려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 의회 홈페이지 안내

<http://council.gb.go.kr>

경상북도의회에서는 대주민 고객 서비스 만족과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하고자 의회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친숙하고 도민과 호흡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도민의소리난을 만들어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또한 본회의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인터넷으로 생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화방송도 함께 실시하고 있습니다.



「웅진 폴리실리콘(주) 공장 준공식」 참석, 지역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

강영석 농수산위원회 위원(상주시2, 한나라)은 4월 13일 상주시 청리면에 입주한 웅진 폴리실리콘(주)공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여한 공장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4월 16일에는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개막식에 참석하여 상주시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하고 자전거 이용 확대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당부했다.

5월 19일에는 상주시 도남동에서 열린 국립낙동강 생물 자원관 착공식 및 생물 다양성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지역의 생물자원 발굴 및 21C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문경 전통찻사발축제」 참석, 관계자 격려

고우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문경시2, 한나라)은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문경새재 제1관문에서 개최된 「문경전통찻사발축제」에 참석하여 행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완벽한 행사진행으로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5월 22일 문경시민운동장에서 열린 제9회 문경 전국MTB챌린저 대행진 및 2011문경시민 생활자전거 대행진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자전거 타기 활성화로 저탄소 녹색성장과 깨끗한 문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6월 5일 문경을 소재 문화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회 문경새재배 전국합기도대회」에 참석하여 대회 관계자 및 참가 선수들을 격려하였다.



「고령군 대표 농산물 홍보 및 판촉행사」 참석, 산지와 소비자간 정보 교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

곽광섭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고령군, 한나라)은 5월 20일부터 5월 22일까지 수원시 소재 농협 수원유통센터에서 열린 우수 농산물 홍보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고령군의 대표 농산물에 대한 시식행사 및 판촉행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산지와 소비자간 정보교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5월 22일 대가야 국악당에서 열린 「제1회 다문화가족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다문화가족들을 위로하였으며,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문화차이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56회 현충일 추념식」 참석, 보훈가족들과 관계자 격려

구자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구미시3, 한나라)은 6월 6일 10시 선산 충훈탑에서 개최된 「제56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하여 보훈가족들과 참석자들을 격려하였다.

6월 22일에는 비산 나루터 체육공원에서 열린 「새마을직공장협의회 어르신 만발공양」 행사에 참석하여 어르신 공경과 봉사 정신을 실천하는데 앞장섰다.



「새마을의 날 제정 기념식」 참석, 축사를 통해 관계자 격려

권영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봉화군, 한나라)은 4월 22일 봉화체육공원에서 개최된 「새마을의 날 제정 기념식 및 봉화군 새마을지도자 수련대회」에 참석하여 축사하고 참석한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뉴새마을 운동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6월 22일에는 「제6회 봉화군 장애인 화합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장애인들과 장애인 가족들을 격려하고 장애인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나가는데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하였다.



「제22회 복사꽃 큰잔치」 참석, 군민들의 화합 및 관광객의 좋은 추억 만들기를 기원

김기홍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영덕군1, 무소속)은 4월 15일 영덕군민운동장에서 개최된 “제22회 복사꽃 큰잔치”에 참석하여 이 행사가 군민들의 화합은 물론 관광객들의 좋은 추억만들기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기원했다.

5월 7일부터 8일까지 영덕군 일원에서 개최된 제16회 경상북도 도지사기 생활체육축구대회에 참석하여 임원과 선수들을 격려하고 생활체육진흥을 통한 도민건강과 체력증진, 화합과 친선을 도모하는 뜻깊은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과학벨트 유치에 위한 지역농어업인 결의대회」 참석, 경북농어업인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줄 것을 당부

김대호 농수산위원회 위원(구미시6, 무소속)은 5월 9일 농업인회관에서 도내 14개 농어업인단체 대표와 지역 농어업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한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50만 경북농어업인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줄 것을 당부했다.

6월 14일에는 「대구은행 구미 선산지점 이전식」 행사에 참석해 이전을 축하하고, 지역내 주민들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하고 중추적인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제21회 포항시 차문화 대축제」 참석, 전통차 시연 및 우리 전통차에 대한 우수성 홍보를 당부

김말분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비례대표, 한나라)은 4월 30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제21회 포항시 차문화 대축제」에 참석하여 맛과 멋이 어우러진 우리 전통차 시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함께 하고 다도예절을 통한 예의범절과 우리 전통 차에 대한 우수성을 널리 홍보 해주기를 당부했다.

5월 20일 포항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1 경북 다문화가족 행복 한마당&여성문화회관 인원축제」에 참석하여 영상물과 공연을 관람하고 이주민 여성들이 문화적 충돌과 2세 교육문제, 경제적 곤란 등을 극복하고 당당한 경북도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관심을 당부하였다.



지역숙원사업 현장점검 실시 및 간담회

김명호 건설소방위원회 부위원장(안동시2, 한나라)은 4월 11일 각종 건설관련 민원에 대한 진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안동시 와룡면을 시작으로 지역숙원사업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경북도 및 안동시 관계관들과 간담회를 갖고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5월 11일 경상북도청소년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청소년에 대한 지도·상담 및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하여 청소년 선도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5월 22일에는 천등산 시민건강 등반대회에 참가하여 시민들과 대화를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도청이전 대책회의」 참석, 민원요구사항 청취

김세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비례대표, 한나라)은 4월 8일 도청이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안동시에서 열린 대책회의에 참석하여 주민대표위원회의 민원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오랜 세월 살아온 정든 고향을 떠나야 하는 이주민들의 허탈감을 고려해 요구대책을 최대한 수렴하고 추진위원회와 주민대표 간 의견을 잘 조율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상대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도청이전을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4월 18일 중국 영화회족자치구와 은천시 초청으로 경제사절단 4명과 함께 중국을 방문하여 은천시장과 자치구 관계자, 중령현 당서기, 현장 경제 관계자들과 만나 경북도와 수년간 이어온 자매우호도시 관계가 이제는 실질적인 교류관계로의 발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면서 동북아자치연합 의장국으로써 활발할 교류가 이루어지고 한국이 사무국으로써 지위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했다. 특히 중국측에서도 중국 서북개발의 중심지인 영화자치구에 양국의 경제적 교류 방안으로 경북도의 선진기술과 투자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참석, 관계자 격려

김수용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영천시2, 한나라)은 5월 16일 자양면사무소에서 열린 자양도로 (국지도 68호선) 선형개량공사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도로선형 개선으로 교통사고 위험요인 해소 및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6월 17일 영천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항공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포럼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으며,

6월 21일 영천시 금호읍 소재 동양종합식품(주)에서 실시된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유관기관간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긴급구조 대응역량 강화에 중점을 둘 것을 주문하였다.



「제30회 스승의 날 행사 및 학교법인 협의회 정기총회」 참석, 축사를 통해 2세 교육 헌신 공적 치하

김영기 교육위원회 위원장(청송군, 한나라)은 5월 13일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에서 개최된 「제30회 스승의날」 행사에 참석·축사를 통해 교육 현장에서 2세 교육에 헌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또한 6월 8일 경주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된 「2011년도 경상북도 사립 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 정기 총회」에 참석·축사를 통해 사학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하고 경북 교육 발전에 기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36회 경산 자인단오제」 참석, 행사장 돌아보며 시민, 관계자 격려

김영식 행정정보진복지위원회 위원(경산시1, 한나라)은 6월 6일 경산시 자인면 계정숲에서 열린 「제36회 경산자인단오제」에 참석하여 행사장 곳곳을 돌아보며 시민들과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6월 12일에는 진량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경산청년연합 한마음 가족체육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더욱 일치단결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하였다.



「경상북도교육청 산하 운전원 교통안전교육 및 등반대회」 참석, 사기진작 자문

김원석 교육위원회 위원(교육1)은 지난 6월 11일(토) 포항시 북구 양덕동에 위치한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에서 「경상북도교육청 운전원 교통안전교육 및 등반대회(대회장 최광환)」에 참석하여 격려사에서 축하와 함께 사기진작에 대한 자문을 하였다.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참석, 장애인과 행사 관계자 격려

김종천 행정정보진복지위원회 위원(영주시1, 한나라)은 4월 25일 영주시민회관에서 열린 「제31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장애인 가족들과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5월 13일에는 영주 서천둔치에서 개최된 「2011 영주 선비문화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여 축하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하였다.



「제14회 경산시 장애인재활증진대회」 참석, 장애인들의 친선과 화합 도모, 재활의욕을 위해 노력 당부

김창숙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비례대표, 민주당)은 4월 21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4회 경산시 장애인재활증진대회」에 참석하여 지역 장애인들의 친선과 화합을 도모하고 건강증진과 재활의욕을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5월 26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11 경북어르신 생활체육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이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청도 어린이큰잔치 및 가정의 달 행사」 참석, 어린이 지킴이 캠페인 전개

김하수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부위원장(청도군1, 무소속)은 5월 5일 청도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2011 청도 어린이큰잔치 및 가정의 달 행사」에 참석하여 “어린이 지킴이 캠페인” 등을 펼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6월 22일에는 청도 새마을공원에서 열린 「청도 범곡천~청도천 자전거도로 준공식」에 참석하여 자전거도로가 주민들의 새로운 쉼터로 각광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포항죽도시장」 방문, 장보기 및 지역 상인들 격려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포항시2, 한나라)은 4월 15일 기계면민구장에서 개최된 「포항북구 의용소방대 소방시연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축사를 통해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했다.

4월 22일에는 경북도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포항죽도시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전통시장 살리기 홍보 어깨띠를 두르고 장보기와 장바구니 배부로 지역 상인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환경미화원 체험활동 및 칠곡군민의 날 기념식」 참석

김희원 전설소방위원회 위원(칠곡군2, 한나라)은 5월 4일 오전 5시부터 10시까지 북삼읍 일대 시가지 가로청소와 함께 일일 환경미화원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생활 쓰레기 분리 및 배출 방법, 종량제 봉투 사용 방법 등에 대한 대주민 홍보도 실시하였다.

또한 5월 6일 칠곡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회 군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행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수상자들을 격려했으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화합과 단결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천시 감문면 기관단체 단합대회」 참석, 행사 참석자에게 지역발전에 힘써 줄 것을 당부

나기보 농수산위원회 위원(김천시1, 한나라)은 4월 30일 「2011년 근로자의 날」에 참석하여 지역 경제의 파수꾼인 근로자들을 격려하고 열심히 일하는 근로자가 대접받을 수 있는 사회 만들기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6월 11일에는 김천시 감문면 「인구 4,000명 달성 다짐을 위한 단합대회」에 참석하여 각 기관단체가 화합과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여 지역발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제5회 신평 왜가리축제」 참석, 출향인 및 군민들과 화합의 시간 가져

나현아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성군2, 한나라)은 4월 10일 단북, 비안, 구천, 안계면 경로 잔치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젊은이들이 웃어른을 공경하고 이웃간 훈훈한 온정이 넘치는 사회가 되도록 다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하고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5월 28일에는 의성 신평면 중율리 청학마을에서 열린 「제5회 신평 왜가리축제」에 참석하여 고향을 찾은 출향인들과 지역주민들을 격려하고 함께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2011년 군민 한마음 걷기대회」 참석, 군민의 관심과 화합 당부

도기욱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예천군1, 한나라)은 5월 28일 청소년수련관 일원에서 열린 「2011년 군민 한마음 걷기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 및 참석한 군민들을 격려하는 한편 내년에 열리는 '2012 예천곤충바이오엑스포' 성공을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화합을 당부하였다.

6월 25일 '예천농업의 미래, 한농연의 힘으로'라는 주제로 「제22회 예천군농업경영인가족체육대회」가 개최된 예천진호국제 양궁장을 방문하여 흙을 가꾸고 고향을 지키며 우리 농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2011 청도 소싸움 축제」 참석, 청도 소싸움 축제를 명품 축제로 발전시킬 것을 당부

박권현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청도군2, 한나라)은 4월 15일~19일까지 열린 2011 청도 소싸움 축제에 참석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청도 소싸움을 대한민국 명품 축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기로 했다.

5월 31일에는 경상북도 장애인 생활체육대제전에 참석하여 장애인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장애인들과 함께 걸어가는 경북도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노력하는 관계자를 격려했다.



성주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방문하여 유통체계 애로사항 청취

박기진 동남권신국제공항유치특별위원회 위원장(성주군2, 한나라)은 4월 27일 성주읍 삼산리에 건립된 가축분뇨처리시설 준공식에 참석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을 당부했다.

6월 15일에는 도내 최대 농산물 유통지역인 성주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하여 농산물 유통 체계의 문제점과 농산물 유통상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였다.



「제22회 동국인 체육대회」 참석, 모교 발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

박병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경주시1, 한나라)은 5월 22일 동국대학교 문무관에서 개최된 「제22회 동국인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대회를 통해 선후배 동문이 하나가 되는 한마당이 자랑스러운 동국인으로서 결속을 다지는 화합의 장이 되고, 모교 발전에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5월 24일 경주예술인의 대축제인 「제28회 경주예총예술제」 개막식에 참석하여 자매도시 익산~경주간의 예술인과의 협력으로 이루어진 공연을 축하하며 시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많이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이산면 보건지소 준공식」 참석,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당부

박성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영주시2, 친박연합)은 5월 20일 「영주시 문수면 발전협의회 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의 그 동안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지역주민들 의견을 잘 반영해 문수면 발전을 위해 잘 이끌어 줄 것을 주문했다.

6월 15일 「이산면 보건지소 준공식」에 참석하여 쾌적한 진료환경 조성에 힘쓴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제4회 영덕 물가자미축제」 참석, 체험행사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

박진현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영덕군2, 한나라)은 5월 6일 안동시 풍천면 소재 도청이전 신도시사업단 회의실에서 「제4차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집행부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이어 안동과 예천의 주민대책위원회, 경북개발공사, 집행부와 함께 이주민 대책에 관련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축산항에서 열린 「제4회 영덕 물가자미축제」에 참석하여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축제를 통해 청정해역 자연산 물가자미를 관광객들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체험 행사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학력향상을 위한 학교장 및 학부모 연수회」 참석, 관계자 격려

박태환 교육위원회 위원(교육5)은 6월 24일 구미시가 후원하고 구미교육지원청과 구미학교운영위원장연합회가 함께 주최한 「학력향상을 위한 학교장 및 학부모 연수회」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였다.

이날 연수회에서 학생들의 교육(진로 학력 인성교육 등)에 더 많은 사랑과 열정으로 지도하는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2회 행복한 걸음 장애인 건강 걷기대회」 참석, 사회참여와 자신감을 향상시키며 사회통합의 계기 마련을 당부

배수향 문화환경위원회 위원(김천시2, 한나라)은 4월 23일 김천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제3회 경상북도지사기 생활체육배구대회」에 참석하여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관계자를 격려했다.

5월 24일 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2회 행복한 걸음 장애인 건강 걷기대회」에 장애인의 손을 잡고 종합운동장을 출발하여 삼락~다수간 도로를 왕복해서 종합운동장으로 돌아오는 3.4km코스 걷기를 함께 하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사회참여와 자신감을 향상시키며 사회통합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고유가 극복 결의대회」 참석, 지역민의 고통을 함께 나눠

변우정 농수산위원회 위원(구미시5, 한나라)은 4월 21일 구미 경북교통연수원에서 열린 「고유가 극복 결의대회」에 참석하여 고유가 극복 방안에 대해 지역민과 교통분담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했다.

5월 13일에는 「제10회 식품 안전의 날 행사」에 참석하여 지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보호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1년 학교운영위원 연수회」 참석, 격려사

서정숙 교육위원회 부위원장(비례대표, 한나라)은 6월 25일 평산초등학교에서 열린 「단위학교 책임경영체제 강화를 위한 학교운영위원 연수회」에 참석하였다.

연수회에서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경산교육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단위학교의 자치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 되어야 하며, 학교운영위원들의 전문성을 향상하여 경산교육 발전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하였다.



「어린이날 기념식 및 어린이 큰잔치」 행사 참석

심정규 교육위원회 위원(비례대표, 한나라)은 5월 5일 구미시민운동장에서 「어린이날 기념식 및 어린이 큰잔치」 행사에 참석하여 어린이들은 꿈과 희망을 가진 미래의 성장 동력임을 강조하고, 사회의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각자 꿈나무를 지키는 보호자 역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2011 영농발대식」 참석, 관계자 격려

윤성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경산시3, 한나라)은 4월 28일 경산농업인회관에서 열린 「2011 영농발대식」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구제역 피해와 이상 기후 등으로 인하여 시름이 큰 농민들을 위로하고 풍년농사를 기원하였다.

또한 5월 16일 동부동 주민센터에서 열린 「다문화가정 구성원 초청 연찬회」에 참석하여 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다문화가정 세대원들을 위로하는 한편, 다문화 가정에 대한 우리 사회의 편견과 문화 차이 극복을 위하여 다함께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5월 17일에는 경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개관식」 참석, 관계자 격려

윤창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구미시2, 한나라)은 4월 22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개최된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개관식」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기여해 줄 것을 주문했다.

5월 26일에는 대전시의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에 참석하여 20돌 맞은 지방자치의 발전방향과 개선점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경주시 서면청년회장 이·취임식」 참석, 공적 치하

이 달 교육위원회 위원(경주시4, 미래연합)은 4월 29일 「경주시 서면청년회장 이·취임식」에 참석하여 서면청년회가 지역사회 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도록 당부하였으며, 회장단 취임 축하의 자리를 함께하였다.



「경북여성지도자 간담회」 참석,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여성지도자들이 앞장서 줄 것 당부

이경임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위원(비례, 친박연합)은 6월 1일 문정시민회관에서 개최된 「한국 걸스카우트 경북연맹 문정지구 창립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6월 21일에는 문경 황제웨딩에서 열린 「경북여성지도자 간담회」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행복한 경북을 만드는데 여성 지도자들이 더욱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대한민국 산채박람회 및 제7회 영양 산채한마당축제」 참석, 산채산업의 중요성 홍보

이상용 농수산위원회 위원장(영양군, 한나라)은 5월 13일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개최한 「대한민국 산채박람회」 및 5월 19일~22일까지 「제7회 영양 산채한마당축제」에 참석하여 산채산업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고 산채클러스터 구축으로 농촌의 일자리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5월 26일에는 문정시민회관에서 개최한 「2011경북도 새마을 여인상 및 행복한 가정가꾸기 실천대회」에 참석하여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제4회 문경새재배 전국합기도대회」 참석, 임원과 선수들을 격려

이시하 문화환경위원회 위원(문정시1, 한나라)은 6월 5일 문경을 문화체육관에서 열린 「제4회 문경새재배 전국합기도대회」에 참석하여 임원과 선수들을 격려하고 그동안 같고 닳은 기량을 맘껏 발휘하기를 기대했다.

6월 9일 동로면 동로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제25회 문정시 농업경영인 가족한마음대회」에 참석하여 농업인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문경농업의 중심에서 농권을 보호하고 농업단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오지마을 찾아 사랑을 펼친다!!

안동 단호에서 「출동!! 드림봉사단 발대식」 참석, 봉사단 격려

이영식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안동시1, 한나라)은 4월 26일 남후면 단호리 마을회관에서 열린 「2011 찾아가는 전문봉사단 - 출동!! 드림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자원봉사가말로 내 이웃과 고장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일”이라며 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에 나선 드림봉사단을 격려했다.

6월 28일 안동탈춤공연장에서 개최된 「농촌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세상만들기」 행사 개막식에 참석하여 한국농촌에 정착해 모범적인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결혼이주민 여성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생활개선회 관계자를 격려했다.



「2011 의성연날리기대회」 참석, 의성연날리기 행사 위상을 세계 각국 참석자들에게 알려

이왕식 농수산위원회 위원(의성군1, 한나라)은 4월 1일 열린 「2011의성 국제연날리기대회 환영 리셉션」에 참석하여 의성 연날리기 대회의 글로벌 행사로서 위상을 널리 홍보하였다.

6월 15일에는 의성군 안평면 마전리 마늘수확 현장을 찾아가 농촌일손돕기를 지원하고 마을회관에서 이장, 노인회장 등 20여 명과 마늘백숙, 마늘갈비찜 등 마늘음식 시식행사를 가지고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안용복기념관 건립 기공식」 참석, 관계자 격려

이용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울릉군, 한나라)은 4월 8일 울릉군 북면 천부 4리에서 열린 「안용복 기념관 건립 기공식」에 참석하여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독도수호 의식강화와 독도에 대한 범국민적 자긍심 제고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5월 27일 저동초등학교에서 개최된 「제44회 울릉군민체육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참가선수들을 격려하였으며,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같고 닮은 기량을 마음껏 펼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3회 장기산딸기 문화축제」 참석, 주민화합과 주민소득증대 기여를 당부

이정호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포항시7, 한나라)은 5월 29일 오전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제5회 포은문화축제 및 경로대잔치」에 참석하여 고장의 자랑스런 포은 정몽주 선생의 뜻을 깊이 새기고 재조명하여 지역민의 문화축제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했다.

6월 10일~11일 장기초등학교에서 열린 「제3회 장기산딸기 문화축제」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축제를 통해 주민화합과 건강웰빙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장기산딸기가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역유치 위해 삭발 투혼

장경식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포항시5, 한나라)은 4월 19일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된 「제31회 경상북도 장애인의 날 기념식 및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장애인들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실현을 위해 더욱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5월 12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유치특별위원장으로 국회 의사당에서 열린 「결의대회 및 기자회견」에 참석했으며, 다음날인 5월 13일에는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과학벨트 지역유치와 함께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지 선정을 촉구하며 삭발하였다.



「홍해읍민 한마음체육대회」 참석, 관계자 격려

장두욱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포항시3, 한나라)은 6월 12일 홍해중학교에서 열린 「제13회 홍해읍민 한마음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대회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승부보다 읍민의 화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의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6월 20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제1차 포항공항활성화 T/F 위원회」에 참석하여 KTX 경주역 개통에 따른 포항공항 승객감소에 대한 대책과 지역항공사 설립을 통한 공항활성화, 중국 등에 대한 국제선 부정기노선 전세기 취항 방안 등 포항공항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동민화합 한마당 큰잔치」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행사 참석

장세헌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포항시4, 한나라)은 4월 23일 여남동 관내 수령 100여 년이 지난 동목나무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동목제에 참석하고 이어 해양과학고 체육관에서 열린 「동민화합 한마당 큰잔치」에 참석하는 등 지역주민의 화합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에 시간을 함께 했다.

5월 29일 위덕대 위덕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 「제1회 위덕대총장배 바둑대회」에 참석하여 집중력 뿐만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과 인성형성에 바둑만한 스포츠가 없음을 강조하며 바둑의 저변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기대했다.



「구미환경자원화시설 준공식」 참석, 관계자 격려

장영석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구미시4, 한나라)은 5월 19일 구미시 산동면 소재 「환경자원화시설 준공식」에 참석하여 공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환경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인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6월 11일 구평초등학교에서 열린 「인동동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석하여 행사관계자 및 주민들을 격려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친목을 다지고, 승부보다 지역 주민들의 화합과 단결로 지역 발전에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49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구미선수단 해단식」 참석, 선수단 격려, 구미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

전인철 문화환경위원회 의원(구미시1, 무소속)은 6월 8일 도량동주민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도량동 주민나눔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과정 수료식」에 참석해 수료생들과 함께 도량동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견학후 수료생들을 축하· 격려하였으며, 저소득층이 많이 모여 있는 도량동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주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관심과 자원봉사자 저변층 확대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6월 27일 박정희체육관에서 개최된 「제49회 경북도민체육대회 구미선수단 해단식」에 참석하여 종합준우승의 성적을 거둔 선수단을 격려하고 구미체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신울진원전 1·2호기 건설 중단과 핵단지화 철회를 요구하는 군민대회」 참석, 울진원전 폐쇄 및 핵단지화 철회 촉구

전찬걸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울진군1, 한나라)은 4월 9일 울진한나라당 사무소에서 개최된 「삼척 LNG생산기지 건설에 따른 피해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빠른 시간내에 삼척시와 가스공사는 책임을 미루지 말고 울진군과 협의해 어민피해 용역조사에 나서주기를 주문했다.

5월 26일 죽변면 죽변파출소앞 광장에서 울진죽변발전협의회 회원, 죽변면 청년회원,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울진 1·2호기 건설의 전제 조건으로, 울진군민들과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으므로 모든 원전 가동 중단과 신울진 건설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낙동강 희망의 숲 조성 식수행사」 참석, 희망의江 낙동강 만들기에 앞장서

정상진 농수산위원회 위원(예천군2, 한나라)은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예천 삼강주막 일원에서 열린 「낙동강 희망의 숲 조성 식수행사」에 참석하여 살아있는 낙동강 만들기, 지역민이 낙동강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5월 13일에는 양궁의 고향 예천 김진호 양궁장에서 「제8회 도지사기 초·중등 양궁대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대한민국, 경북도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스포츠인 양궁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제1회 성주생명문화축제」 참석,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 당부

정영길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성주군1, 한나라)은 5월 26일 성주웨딩에서 열린 「제10대 경북하키 협회장 취임식」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한국하키 발전을 위해 애써 줄 것을 당부했다.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성주군 성박술에서 개최된 「제1회 성주생명문화축제」 행사에 참석하여 행사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축제를 성공리에 마칠 수 있도록 당부하였다.





「제18회 포항어린이날 큰잔치」 참석, 어린이들 격려하고 축구공 선물

채옥주 낙동강살리기특별위원회 위원장(포항시6, 한나라)은 5월 5일 경북매일 주최로 포항 환호해맞이공원에서 열린 「제18회 포항어린이날 큰잔치」에 참석하여 어린이들과 참가자들을 격려하고 어린이들에게 축구공을 선물하였다.

6월 21일에는 구미 금오산 호텔에서 열린 백희영 여성가족부장관 초청 「여성정책설명회」에 참석하여 여성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경상북도 평생교육협의회」 참석, 평생교육 방안 협의

최우섭 교육위원회 위원(교육2)은 6월 29일 경상북도청 제2회의실에서 「경상북도평생교육협의회」에 참석하여 2011년 10월 7일 ~ 10월 9일(3일간) 경산생활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될 「제2회경상북도 평생학습축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도민들에게 유익하고 다양한 평생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제2회 경주 기계천 미군 폭격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 참석, 가족 위로

최학철 농수산위원회 위원(경주시3, 한나라)은 4월 9일 경주시 강동면 양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제2회 경주 기계천 미군 폭격사건 희생자 합동위령제」에 참석하여 가족들을 위로하고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인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했다.

5월 15일에는 경주시 황성공원에서 열린 「체신노조 경북지방본부 축구대회」에 참석하여 지역민의 소식통이 되어주는 체신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당부했다.



「초·중학교 사제동행 건강달리기 대회」 참석, 관계자 격려

추재천 교육위원회 위원(교육3)은 4월 27일 김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개최하는 「초·중학교 사제동행 건강달리기 대회(김천 종합운동장)」에 참석하여 학생들과 함께 3km를 달리고 학생들의 체력증진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개최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5월 18일 칠곡군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개최하는 「칠곡군 교직원 체육대회(왜관중앙초등학교)」에 참석하여 교직원들을 격려하고 항상 건강 증진에 노력하도록 당부하였다.



「상주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기공식」 참석, 관계자 격려

한재석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상주시1, 한나라)은 5월 19일 상주시 도남동에서 열린 「생물 다양성의 날 기념식 및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기공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관광과 체험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완벽한 시공으로 명품 자원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5월 30일에는 상주문화회관에서 열린 「2011삼백청소년 한마음축제」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청소년을 격려하였으며, 6월 25일에는 사벌초등학교에서 열린 「재상 사벌향우회 창립10주년」 행사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회원들의 친목과 단합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포항시 흥해읍 달전지역 한마음 경로잔치 및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 참석, 관계자 격려

한창화 농수산위원회 위원(포항시1, 한나라)은 4월 29일 「기계면 봉계1리 마을회관 및 경로당 준공식」에 참석하여 기관단체, 출향인사, 마을주민과 다함께 화합하는 시간을 보냈다.

6월 5일에는 「흥해읍 달전지역 한마음 경로잔치」에 참석하여 지역민의 화합과 애乡심을 통한 경로사상 고취와 지역 어르신들의 노고를 위로했다.

6월 11일에는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개최한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기금마련을 위한 바자회」에 참석하였고, 6월 12일에는 「제13회 흥해읍민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참가선수들을 격려했다.



「영천소방서 안전마을 만들기 및 화재예방 캠페인 행사」 참석, 주택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

한혜련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영천시1, 한나라)은 4월 15일 화산면 효정1리 마을회관에서 개최된 「영천소방서 안전마을 만들기 및 화재예방 캠페인 행사」에 참석하여 소방관 임직원과 의용소방대 대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최근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주거 환경조성을 위해 기초 소방시설 보급과 주택화재 예방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6월 22일 금호읍사무소 소공원에서 열린 「주민자치 수강생 발표회」에 참석하여 수강생 발표회를 통해 주민들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뜻 깊은 계기가 되며 그동안 갈고 닦은 솜씨를 유감없이 발휘해 달라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영주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수회」 참석, 격려사

홍광중 교육위원회 위원(교육4)은 4월 11일 영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영주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연수회」 축사에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건전하게 자라나는데 학생상담자원봉사자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소보 펜션준공식」 참석, 관계자 격려

홍진규 건설소방위원회 위원(군위군, 한나라)은 4월 11일 농어촌소득자원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소보면 보현리에서 열린 펜션준공식에 참석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부자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하여 주민들의 부단한 노력과 친절한 손님맞이를 통하여 지역발전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4월 27일에는 군위군청에서 개최된 「지역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세미나」에 참석하여 패널들과 열린 토론을 벌였으며,

5월 12일에는 「고로면 가암리 마을회관 준공식」에 참석하여 공사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마을회관이 주민의 휴식공간 및 주민들의 의사소통의 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운수종사자 교육」 출강, 선진교통문화의식 중요성 강조

황이주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울진군2, 한나라)은 5월 28일 경북교통연수원주관으로 울진 복지회관에서 열린 「운수종사자 교육」에 출강했다. 「운전자의 자긍심 함양과 경북도정 안내」라는 주제로 강의한 황 의원은 “사업용 자동차는 사고 발생률이 높고 한 번의 교통사고로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며, 또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 과다지출, 택시강도, 강간사건, 교통질서 문란 행위 등의 최소화를 위해 선진교통문화의식 및 정신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월 16일 울진 덕구온천에서 열린 「울진로타리클럽」, 17일 백암한화콘도에서 열린 「후포라이온스 클럽」, 28일 울진중학교 강당에서 열린 「울진라이온스클럽 신규 회장단 이·취임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나무숲 여름향기 가득한 의성 빙계계곡

삼복 더위에 열음이 일고 계곡 구석구석 어디를 가나 시원한 바람이 솟아나는 신비한 곳!

경북 8승의 하나로 기암절벽과 깊은 계곡의 맑은 물이 어우러져 흐르고 삼복 더위 바위틈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 나오는 바로 빙계계곡이다. 용추, 물레방아, 바람구멍, 어진바위, 의각, 석탑, 얼음구멍, 부처막을 빙계 팔경이라 하는데 용소를 비롯해 수대, 풍혈, 인암, 의각, 석탑(보물327호), 빙혈, 불정 등이 자리잡고 있으며 찬바람이 바위틈새에서 불어 나오는 풍혈과 한여름에도 얼음이 어는 빙혈은 신비함을 인정받아 최근 천연기념물 제527호로 지정되었다.



Tip_ 의성 빙계계곡 이용방법

- 📍 주 소 :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
- ☎ 문 의 : 의성군 새마을문화과 054)830-6356, 춘산면사무소 054)830-6456
- 🌐 홈페이지 : tour.usc.go.kr
- 📄 입 장 료 : 성인 1,000원, 청소년·군인 700원, 어린이 500원(7월과 8월만 징수)
- 🚗 교 통 편
 - 북대구IC → 의성(봉양) → 금성 → 가음(현리방향) → 빙계계곡
 - 의성읍, 금성면에서 가음면 현리행 시내버스를 이용, 일일 2회(소요시간 40분 정도)
 - 가음면 소재지에서 춘산방향으로 5분 정도 가다보면 빙계군립공원 이정표가 있음.
- 📍 인근 관광지 : 금성산 수정사, 공룡발자국화석(천연기념물), 오층석탑(국보 제77호), 빙계운천, 산운대감마을, 조문국사적지(경덕왕릉, 고분군)

경북!



포항 보경사계곡

태백산맥 발원에 위치해 등해를 바라보는 내원산(930m)의 계곡은 카피르지 암아 오르기 쉽고 한여름이 되면 피서객들로 끝까지부터 붐빈다. 내원산 기슭 10km에 달하는 계곡에는 12개의 폭포가 한 폭의 동양화화도 같이 굽이굽이 이어져 운치를 자아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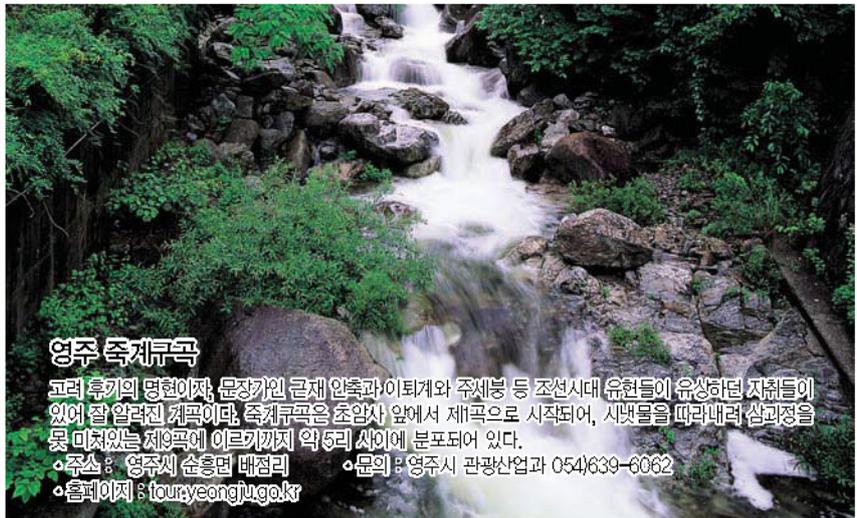
- 주소 : 포항시 송라면 중산리
- 문의 : 포항시 관광진흥과 054)270-2244
- 홈페이지 : phtour@pohang.org



문경 운달계곡

운달산 남쪽 기슭에 형성된 계곡으로, 끝까지를 타고 흘러내리는 계곡수가 마치 한겨울 얼음물같이 차갑게 느껴져서 계곡 주변을 서늘하게 만들어 맹골로도 불리운다. 또 수령 300년이 넘는 전나무 숲속에는 굵디굵디 천수를 다한 고목들이 조각품마냥 운치를 더해주고 있다.

- 주소 : 문경시 삼북면 김동리
- 문의 : 문경시 관광진흥과 054)550-6392
- 홈페이지 : www.tourngmg.go.kr



영주 죽계류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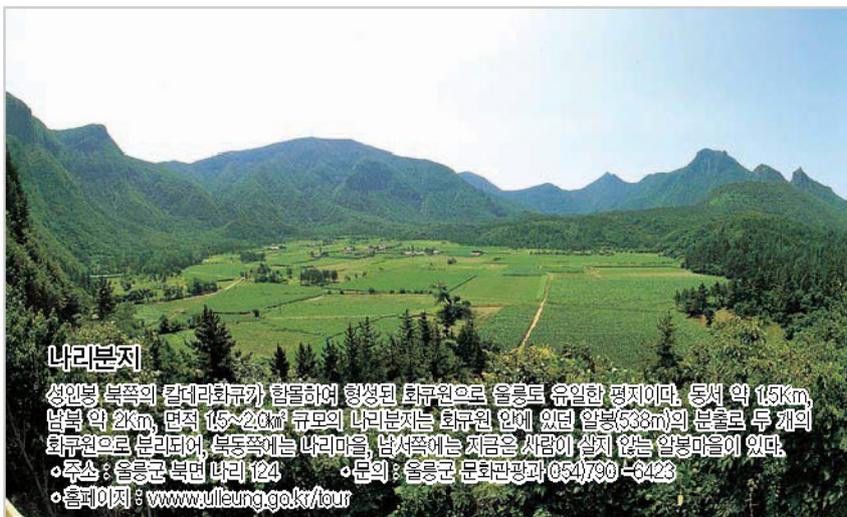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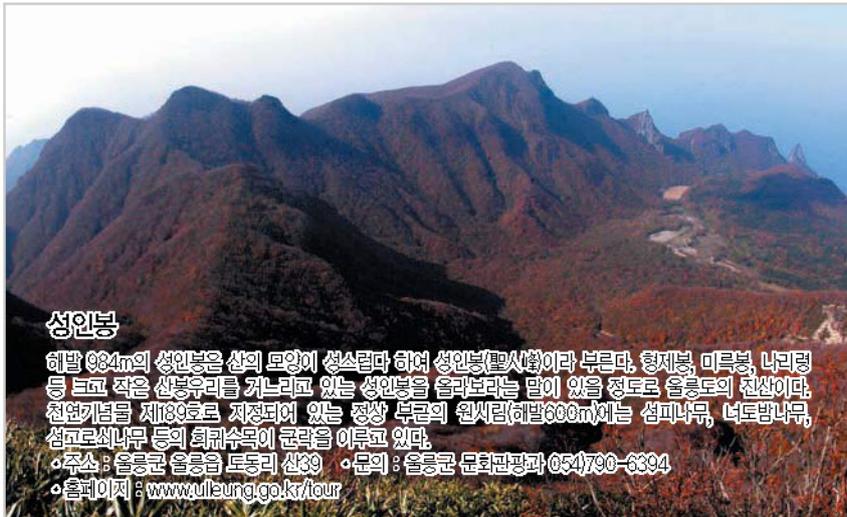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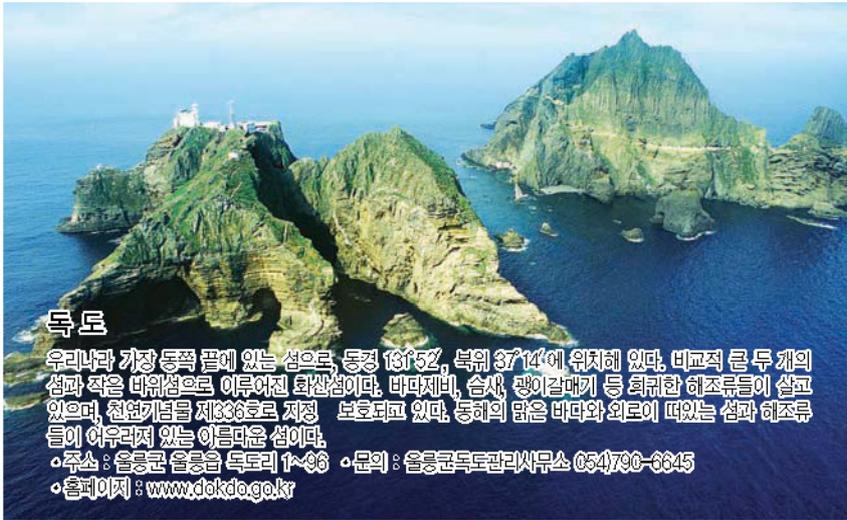
고려 후기의 명현이자, 문정가인 근재 안축과 이퇴계와 주세붕 등 조선시대 유현들이 유상하던 자연들이 있어 잘 알려진 계곡이다. 죽계류곡은 초암사 앞에서 계곡으로 시작되어, 시냇물을 따라 내려 삼괴정을 뒀 미처있는 제9곡에 이르기까지 약 5리 사이에 분포되어 있다.

- 주소 : 영주시 순흥면 배점리
- 문의 : 영주시 관광산업과 054)639-6062
- 홈페이지 : toungyeongju.go.kr

즐거움이 있는 경북 여름 속으로~

어서오이소!

태고의 자연 그대로 오롯한 신비의 섬 **울릉도 · 독도**



경북!



Tip_ 울릉도 이용방법

☎ 문의 : 울릉군청 054)791-2191

🌐 홈페이지 : www.ulleung.go.kr

☎ 교통편

- 대구포항고속도로 → 포항IC → 포항여객선터미널 → 도동항
- 포항 → 7번 국도(울진/영덕방면) → 후포항여객선터미널 → 후포항
- 동해고속도로 → 강릉IC → 7번 국도(목호항방면) → 목호 → 목호여객선터미널

Tip_ 독도 이용방법

📍 주소 :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

☎ 문의 : 도청 독도수호과 053)950-3072,
울릉군독도관리사무소 054)790-6645,
포항여객선터미널 054)242-5111,
후포여객선터미널 054)787-2811,
목호여객선터미널 033)531-5891

🌐 홈페이지 : www.dokdo.go.kr

☎ 교통편

- [포항 - 울릉도 - 독도]
선플라워호(포항/09:40 출발, 울릉/15:00 출발),
- [후포 - 울릉도 - 독도]
우리호(부정기 운항)
- [목호 - 울릉도 - 독도]
씨플라워호(부정기 운항), 오션플라워호(포항/10:00
출발, 울릉/17:30 출발)

동해를 수호하는 「국토의 파수꾼」, 울릉도

태고의 신비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살아 숨 쉬는 동해 유일의 도서군으로서 장구한 세월동안 동해를 수호하는 「국토의 파수꾼」 역할을 담당하여 온 울릉도는 동경 130° 54', 북위 37° 29' 에 위치한 화산섬이다. 해발 984m의 성인봉을 중심으로 천혜의 절경이 바다와 내륙 곳곳에 산재해 있으며 부속섬으로 독도, 죽도 등 여러 섬이 있고, 특산물로 오징어와 호박엿, 산나물 등이 유명하다.

언론에서 본 의정활동

영남일보 | 4. 19

“과학벨트 안되면 방폐장 건설 보장 못해”

경북도의회 성명서 발표
대정부 투쟁도 불사 각오

경북도의회는 18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공평경대한 사업추진 및 경북(G·울산(U)·대구(D))지역 유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경북도 동해안 지역은 연구기반·산업여건·부지안전성·경주환경을 비롯해 포함해 방사광가속기·경주의 양성지가 속기가 모여 있는 세계 유망의 지역으로 과학벨트사업의 최적지”라며 “이같은 이유로 세계 최고의 기초과학연구소인 막스플랑크연구소가 포함지역에 입주해 있다”고 밝혔다.

또 “이처럼 세계 과학계 탁월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벨트가 우리 지역에 유치되지 않으면, 경북도의회는 300만 규모의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는 결연한 의지를 나타

도의회는 “경북도만이 원소·방사성폐기물처리장 등 지역에서 기피하는 국가의 짐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배려나 지원에서는 외면했다”며 최근의 영남유치무산, 방폐장지원사업명·불분명한 태도 등을 예

도의회는 일부 지역이 대사항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반주먹하고 있고, 일부 장담이 이에 기해져 자칫 국가를 그르칠지도 모를 위기상



경북도의회 의원들이 18일 과학벨트 유치를 촉구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경북·울산·대구 등 3개 시·도민의 여론을 결집해 단호하고도 엄중한 정치적 대응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상호 경북도의회 의장은 “최근 과학벨트 입지선정을 두고 위원회가 본격적인 활동도 하기 전에 정치권 일

하는 등 공평하고 객관적인 입지선정의 근거를 흔들고, 일부 정치인들에 대한 정치적 탄압의 의혹도 의심된다”며 “경북 동해안권에 입지가 안 된다면 원전·방폐장 건설도 보장할 수 없으며, 교과부는 특별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신문 | 5. 25

고엽제, 도의회 차원 적극 대응 문화환경위, 공동조사 적극 참여하기로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장재현)는 24일 오후 2시 긴급회의를 소집하여 필곡군 미군기지(레크 캠프)내 고엽제 대립과 관련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날 회의에서는 경북도 김남일 환경해양산업국으로부터 고엽제 대립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진상파악과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을 위하여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 날 문화환경위원들은 현·미군 합의를 따라 현재 진행 중인 공동조사가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중앙정부와 경북도에 촉구했다.

또 주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에서도 공동조사에 적극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장재현 위원장은 “주민들의 건강문제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고, 고엽제 뿐만 아니라 다른 독극물도 대립하였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의혹과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달라”고 경북도에 요구했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의 위원들이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경북일보 | 6. 2

경북도의회, 상임위 활동 활발

경북도의회는 의원들의 전문지식 함양을 위해 비회기 중인 1일 상임위원회를 비롯한 업무연찬을 실시했다.

기획위원회와 교육위원회는 이날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린 대구은행에서, 문화환경위원회와 농수산위원회는 3일차 예정으로 농업 실용기술원 앞에서 각각 연석 연찬회를 하고 있다.

앞서 행정보건의료위원회는 지난 달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부산 해운대에서 연찬회를 가진 바 있다. 기획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합동 연찬회에서는 위원회별 연찬회장에 대한 간담회 및 토론, 리더의 행복만들기 및 소통과 고개잡동에 대한 특강 순으로 진행됐다.

문화환경위원회와 농수산위원회는 이날 연찬회에서 이준우 한의약박사의 ‘스트레스 극복과 건강관리’란 주제로, 전종수 경주 환경농업교

육원장의 ‘친환경, 친인간’이라는 주제로 전문특강을 했으며, 대령농산물 신인가공시장을 방문하여 친환경 생산이재들이 가공되는 과정을 견학했다.

또 목포를 지키는 ‘경주’ 시장과 동해김비사령부를 방문, 장병을 위문하고 경북도내 각 지역에서 가져온 쌀을 전달했다.

장재현 문화환경위원장은 “다 시도 관광지원 운영·실태의 비교 견학을 통해 앞으로 의원활동 추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농수산위원장은 “농산물 가공시설을 견학하고 우리농촌이 어렵고,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지역이 때문에 새로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발전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yang@yeongbuk.co.kr



경북도의회 기획위원회와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열린 대구은행에서 업무 연찬회를 갖고 있다.

대구일보 | 5. 26

경북도의회는 정책 개발 ‘열공’ 중

의정연구단체 연구개발 속도·10일 중 성과 공개

지방의회 소식

경북도의회 의정연구단체들이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의정연구단체는 상임위원회와 별도로 도의회 정책연구위원의 철저한 영 조례에 의해 만들어진 연구조직으로, 오는 10월 말까지 운영된다. 현재 경북도의회에는 지방자치의 원리 및 입법정책기반연구를 위한 ‘불투명연구회’를 비롯해 지역 축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경시조용’, 산림 및 임업발전을 위한 ‘임업발안연구회’, 지방행정유니버시티 원실화를 위한 ‘행정연구회’ 등 4개 단체가 있다.

불투명연구회의 경우 지난 3월 광의회로는 처음으로 경기도의회와

의정연구체인 지방자치발전연구회와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연구활동과 정보교환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 다음달 초에는 지방의회 운영 현황 등을 중심으로 한 세미나를 열고, 23일에는 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을 기념하는 세미나에 경기도의회 의원을 초청,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3월 출범한 ‘경시조용’은 경북 각 지역 축제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으로, 최근 경북 축제의 현황분석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고, 고령의 대가이 축제 현장을 방문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경시조용은 지난 토론회에서 경북의 지역 축제 10개 중 7개는 지역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임업발안연구회도 다음달 중 경북도 산림복지과와 함께 국내 우수 산



경북지역 축제 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인 경시조용이 토론회를 열고 경북 축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림현황을 찾아 나섰다.

이와 별도로 행정보건의료위원회는 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 연찬회를 열고 경남대 심원식 교수와 조경, 한국 사회복지정책의 동향과 전망이라는 주제의 특강을 들었다.

경북도의회 입법정책지원팀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의정연구단체가 올해는 의원들이 1개 연구단체에 가입모도 선택과

집중으로 운영하면서 연구단체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기간이 길면 유예는 다양한 결이 도출과 조례 제정 등 경북도의대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4개 연구단체는 10월 중 연구발표회를 열고 그동안의 연찬회를 공개한다.

윤정혜 기자 yun@kdaengju.com



매일신문 | 6.7

경북도의회 "과학벨트 불복종 운동 개시"

"월성원전 수명연장 철회" 상임위서 본격 검토 나서

신공항·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유치 무산에 맞서 '월성원전 수명연장 반대' 등 경북도의회(의장 이상효)가 본격적인 대정부 불복종 운동에 나선다. **도의회**는 10일 열리는 정례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을 통해 '월성원전 수명연장 철회 촉구'를 위한 결의안' 실시를 2013년 실계수명이라 하는 경우의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대한 문제점을 의회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이주(울진) 도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원전에 대한

경주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수명연장을 결사 반대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최근 신공항·과학벨트 등 대형 국책사업 유치가 잇따라 실패해 지역민들의 소외감이 커지고 있어 현상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월성원전 수명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또 "현재 다수 의원들이 수명연장에 반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해 과학벨트 대전 입지가 결정된 후 긴급 의원총회와 설명회 등을 통해 '과학벨트 입지가 공정한 평가보다 사전타락과 정략적 결정에 의해 이뤄졌다. 63명의 도의원의 중지를 모아 원전 가동중지와 방폐장건설 중단 등을 비롯해 탈원, 의원직 사퇴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 대응하겠다'며 대정부 불복종 운동을

개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방폐장 건설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으나 경주시에 선수(?)를 빼앗겼기에 따라 '월성원전 수명연장 반대' 카드를 백트러짐으로 전락했다. **도의회**는 우선 월성원전 수명연장 반대 등 법적·행정적인 수단을 동원한 뒤 여의치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 등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효 의장은 "원전과 방폐장 등 국가 위험시설 대부분을 경주와 울진 등 경북에 몰아 넣은 반면 신성상 동력의 수도권 배차에 이어 신공항·과학벨트 무산 등 대구경북에 잇따라 정부 정책에서 배제받고 있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경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희기자 cchoo@manet.co.kr

경도일보 | 6.15

도의회, 정례회 상임위 활동 조례안 등 심사

대구취수원 이전 특별결의안 채택 본 회의 상정 농수산물 재해보험 확대, 보험료 지원 확대 주문

경북도의회(의장 이상효)는 13일 제248회 제1차 정례회 4일째를 맞아 각 상임위원회 조례안 등을 심사했다. 행정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감사관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0년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특별회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위원했다. 구자근 의원은 부채지수 행상이 어느 정도 개선됐는지를 질의한 뒤 총지출연건과 외의 보조단채도 감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경현 의원은 경북도의 징계대상 공무원 수가 전국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2개 정병도를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예비 지출승인의 3건과 조례안 1건, 결의안 1건을 심사했다. 경북도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진흥위원의 설명과 관련해 시연에 **도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의견과 법령적인 문제와 다른 단체와의 협력 등에서 깊이있는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의견에 따라 심의 유보시켰다. 문화관광체육국, 환경해양산업국 및 관련 3개 사업소, 보건환경연구원의 2010년계연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으로 통과시켰다. 대구취수원 이전 관련 특별결의안 채택에 관한 정원도 채택, 본회의에 상정했다. 농수산물위원회(위원장 이상훈)는 2010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원안 시안에 대한 추진상황 대해 보고를 받았다. 농수산물 소관 보고에서 7개년 회로 지난 등 대구도 농작물 재배 방식 변화가 증가 추세를 지극한 난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책 마련과 신재성에너지 활용 노력 농어업기반확충, 농수산물 재해보험 가입확대, 재해보험료 국비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또 일부 농산물 가공공장과 이 상기간에 따른 직공부진으로 수급 조절 및 가격 불안정 상황에서 쌀, 쌀소유, 과실류 등 농산물을 가격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한편 전국 최대의 만수산지인 경북지역 특산품의 판수산업 안정화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현소방위원회(위원장 고우원)는 2010년도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및 경상도지방재정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결산사항을 가졌다. 김규원(의원)은 경북도내 7개

경상매일신문 | 6.16

포항·안동의료원 운영실태 파악

제248회 경북도의회 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활동

경북도의회는 15일 제248회 제1차 정례회 6일째를 맞아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포항의료원과 안동의료원 운영실태 파악, 포항 공공병원 생애하천조성사업, 기숙형 고등학교 등 도정전반에 대한 현지파악을 활발히 전개했다. 행정보건의료위원회(위원장 권영만)는 15일 도내 공공의료기관

을 현지파악, **도의회** 2명의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운영실태와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이번 현지파악에서는 2009년도 부터 추진하고 있는 기숙형 고등학교가 지역의 우수 학생들의 도시나 타지역으로의 유출을 막고 앞으로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지방자치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있도록 최선을 당부했다.



김현소방위원회는 15일 포항시 흥해읍 곡강천 생애하천조성사업 현장을 둘러 보고 사업추진 현황과 사업추진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포항 공공병원 생애하천조성사업은 포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2008~2011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116억4천700만원으로 생애하천 보전 및 주민 휴식공간 확충 등 친수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 사업내용은 하상정비, 지천지도 및 식재로 설치, 생태공

경북매일 | 6.24

자치입법권·인사독립권·의원보좌관제

경북도의회 법제도 개선 힘신는다

부활 20주년 심포지엄

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을 맞은 경북도의회가 자치입법권의 강화, 의회 인사독립권, 의원보좌관제 도입 등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23일 호텔인터뷰고 컨벤션홀에서 '경북도의회 의정 활동의 성과와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경북도의회 부활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주요 참석자들은 지난 20년 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권을 제약하는 많은 법령과 취약한 지방재정력 등에도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발전이 크게 이바지해 왔다는 것에 공감하면서 지방의회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만큼 보다 높은 의정 활동 성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그에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을 촉구했다.

기조연설에 나선 장세욱 (영지대)명예교수는 "지방의회 부활 20주년의 회고와 전망"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의회는 출범은 권치행정에서 벗어나 자치행정 및 위헌법정체제로 이행한 중요한 전기가 되었음에도 지방의정활동이 제대로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없는 제도적 여건은 오히려 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깊게했다"며 지방분권화, 주민참여, 소신거부권, 여성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정당정치계의 금지 등을 주요한 향후 과제로 제시했다.

도 의원일(충남대), 지방분권추진위원회(위원장)교수는 "지방의회가 살아야 지방자치



경북도의회는 23일 호텔인터뷰고 컨벤션홀에서 '경북도의회 의정 활동의 성과와 발전과제'라는 주제로 '경북도의회 부활 2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가 살고, 지방자치기 살아야 결국 국가도 살 수 있다"며 "지방의회는 대의제도의 핵심이며 민주주의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 지방의회가 지금 실패했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고 오히려 지금이 국회 의원이 반발하는 지방의원상을 정면하고 실천해 나갈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병대(영남대, 전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교수도 경북도의회 위상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의 강화, 의회 직책 도입을 비롯한 정당정치 실시 여부 주민결정,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대결구조 극복을 위한 갈등조정위원회 설치, 적극적인 해외연수 제도 등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은 "도의회는 지난 20년 동안 어렵고 힘든 지방자치 여건하에서 치지 않은 시정착을 겪기도 했지만, 도민의 뜻과 의지를 대변하는 민의(民意)의 전달(申達)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의정 활동으로 지역의 정치·행정적 민주화에 이바지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정착과 성숙에 중요한 밑거름이 돼 왔다"며 "제9대 도의회는 63명의 도의원이 하나 되어 탁상정치 아닌 민생현장에서 직접 도민의 말을 경청하고 도민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현정정치의 활달한 의정 활동은 우리의 자랑이다"고 밝혔다.

/서인교기자 igseo@kbmaet.com

생태, 문화, 경제가 흐르는
낙동강

강을 따라 푸르른 자연이 살아나고,
찬란한 문화와 역사가 함께하는...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고, 우리의 경제가 살아나는
낙동강 700리 희망의 그날이 다가옵니다.



도민에게 믿음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열린 '경상북도의회'

경제가 흐르는 낙동강! 희망이 넘치는 낙동강!
경상북도의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경상북도의회
<http://council.gb.go.kr>